“KT, 콘텐츠 무단 사용”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6일>

코스피 2053.93 (−50.48)

코스닥 752.01 (−17.25)

금리(국고채 3년) 1.83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26.30 (+2.80)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등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장님! 이러시면 안돼요

데스크 시각

특경법상 배임 한화 김승연, 계열사 취업 못해
'창조경제'이어 '케미칼 폭발' 사실상 '회장' 역할
향후 5년여간 '업무개입' 판단 땐 법위반 소지

최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케미칼의 폭발사고와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표자 자격으로 나서 사과를 했다. 김 회장은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의 뜻을 표하고 한화케미칼 경영진에게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사과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김 회장의 이런 활동은 사실상 법의 취지에 벗어난 행위이다.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법상의 배임죄로 2014년 2월 유죄가 확정됐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3년 6개월이 남았다.

특경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간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취업제한 기업의 범위는 이 법 시행령이 부수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김승연 회장이 한화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입증이 어렵지 않다.

김 회장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회장도 아니다. 계열사 어디에서도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6월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 한화그룹 계열사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한화그룹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중에서도 특히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행 관련 회사와 다시 관계를 맺는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게 하고 있다. 반복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 취지다. 이 법의 시행령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재판 결과를 항상 파악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취업제한 사실과 그 범위를 통지해야”하고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회사는 5년간 관허업에서도 허가, 인가 등을 받을 수 없게 제약이 뒤따른다.

앞서도 한화그룹과 충청남도가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충남테크노파크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열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1525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한 출범식에도 김 회장이 참석했다. 여기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돈을 아끼지 말라”는 김 회장의 지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경제신문 등이 전했다. 이 또한 특경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회장님은 공식적으로 등기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생각인지 김회장을 보좌하는 측근들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자이든 후자이든 한화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도 문제가 있어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독자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회장을 의전하는 현업부서 임원들은 당연히 검토했어야 하는 문제이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한 자세로 특경법의 취지를 생각해 김 회장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김종훈 산업부장 fun@metroseoul.co.kr

한줄 News

▲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달 5~8일 항공편으로 북한을 방문키로 했다.

▲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저장조 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폐수처리시설 증축공사에 이어 일부 생산공정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경기침체와 엔화·유로화 평가 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238억9000만 달러에 그쳐 전년보다 62% 감소했다.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더 늘어나지 않아 전날과 동일한 186명이며 사망자도 6일째 발생하지 않아 33명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는 녹조발생을 막기 위해 6일 오전 10시부터 낙동강에 설치된 8개 보 가운데 하류에 있는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4개 보 수문을 동시에 열었다.

▲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6일 통과했다.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7일부터 설계사의 최근 3년간 신계약 건수, 민원해지 건수, 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설계사 모집경력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5일 발표한 '2014년 세계 주요 상품 서비스 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세계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품목은 8개로 나타났다.

▲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혁신교육 담당관 회의를 2개월마다 열어 혁신교육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 한국거래소는 한국 경제와 증시의 성장성을 대표하는 초우량종목 30개로 구성해 미국의 다우지수를 벤치마크한 'KTOP30' 지수가 오는 13일 첫선을 보인다고 6일 밝혔다.

▲ 정부와 새누리당이 6일 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제도의 변화에 맞춰 사학연금을 바꾸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 정기국회 때 사학연금법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 5일 오전 11시께(현지시간) 중부 필리핀 세부섬 막탄섬 주변 해상에서 한국인 3명이 스쿠버 다이빙 도중 실종돼 편지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에 나섰다.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20대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9%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동의(매우 동의+동의)한다고 답했다.

▲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말 100인 이상 사업장 1만571곳의 임금교섭 타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금교섭 타결률이 43.7%로 작년 동기(17.5%)보다 26.2%포인트 높아지고 임금총액 인상률은 지난해 상반기말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3%를 기록했다.

알고보니 무능외교

日 세계유산 등재협상 하루만에 평가 반전
막판 뒤집기 외교라더니… 일본 말바꾸기

일제 강제징용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서 나타난 한국 외교에 대한 평가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면 부정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6일 '일본에 농락당한 굴종외교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국의) 막판 뒤집기가 아니라 (일본의) 비열한 물타기에 당한 외교"라고 비판하며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일본의 입장 번복을 저지하라고 요구했다. 실패할 경우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 최고위원은 "윤 장관조차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우려가 충실히 반영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전방위적인 외교노력이 이루어 낸 값진 성과'라고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유산등재가 끝나기 무섭게 말을 바꿔 강제노역 인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기준이나 조건을 만들어놓지도 않은 채 참으로 어설픈 무능외교를 한 꼴이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의장국인 독일을 비롯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은 양국의 합의가 없을 경우 표결이 아니라 내년으로 심의가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렇게 될 경우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위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반면 일본은 위원국에서 빠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며 "그 중요한 지렛대를 우리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실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전날 밤 기자들에게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대사의 '징용' 관련 영어 표현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토 대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영어로 "Japan is prepared to take measure s that…Koreans and others who…forced to work…"라고 말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언론은 'forced to work'를 '종사한'이라거나 '일한'이라고 해석했다.

또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문 본문에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만 하고, 여기에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는 주석을 달았다. '주목한다'는 표현과 '종사한'이라는 두가지 표현을 거치면서 '명확성'이 사라지고 만 셈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등재 결과를 두고 "조선반도 출신자들의 징용 문제를 포함해 일·한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해결 완료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한일정상회담의 포석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정부가 일본의 유산 등재에 협조했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려다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메르켈 총리의 피곤한 출근길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전해진 6일(현지시간) 아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피곤한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그리스 국민투표를 통해 눈에 가시였던 알렉시스 치프라스 좌파정권을 찍어내려고 했지만 채권단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국민들이 치프라스의 편을 들어주면서 곤경에 처하게 됐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이날 전격사임하는 극약처방으로 채권단이 양보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선심추경에 밀린 메르스 병원 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관련해 정부와 지원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의안의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일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복지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환자나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에 관해서만 합치점을 찾았을 뿐 다른 안건에서는 모두 엇박자가 났다.

야당 위원들은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것 뿐만 아니라 진료객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에까지 보상 범위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야당은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법에 명시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이 또한 공청회를 포함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간 메르스 사태로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관련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데는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들은 물론이고 여야 지도부와 정부까지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니 정부가 꽁무니를 빼는 형국이다. 공청회를 통해 내용을 정리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결국은 예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15조원 중 보건의료분야 내 메르스 직접 대응 예산은 9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안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앞서도 "기재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꺼리는 부분이 있지만 어려운 의료기관에 특별금융지원이라도 해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긴급한 공공의료확충이나 피해 병원 의료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경에 담겨 있는 선심성 총선용 예산을 다 걷어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정원기자 garden@r

국회법 개정안 폐기… 세월호법 사망선고

세월호법시행령 수정 불가능… 청와대 '환영'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졌지만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세월호법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선고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표결 불참 방침을 정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에서 꼼짝 않고 기표소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의결되려면 우선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0인 이상의 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투표가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짐에도 투표 참여인원은 128명에 그쳤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부의 세월호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탄생했다. 공무원연금법 개혁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급조해 양보의 대가로 여당에 통과를 요구했다.

협상권을 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제1과제로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문제 삼아 급기야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유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가로 낙인찍기에 이른다.

이후 '유승민 찍어내기' 정국이 이어지면서 세월호법에 대한 관심은 희미해졌다.

이번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모법에 위반되는 세월호법시행령을 수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세월호법시행령은 조사위원회 의사와 관계 없이 각 부처 공무원을 조사위원회에 강제로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진상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조사1과장에 검찰 수사서기관을 임명하도록 못박았다.

이처럼 국회법 개정안의 본질이 세월호법시행령임에도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정부 입법권과 사법부의(법령) 심사권을 침해한다"는 일반론을 역설하는 데 그쳤다.

세월호 활동가 단체들이 연대한 풀뿌리네트워크 회원들이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세월호법시행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재의결 무산에 대해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러 시민의 행동을 보여주고자 나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날 본회의가 열린 국회 앞에서는 세월호법 관련 시민단체들이 나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외쳤지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폐기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안 재의의 건이 오늘 본회의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만 했을 뿐 세월호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는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몇몇 관계자들의 입에서 "유 원내대표가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듣고 판단할 것이며 청와대는 그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유 원내대표는 거취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다.

/윤정원기자 garden@metroseoul.co.kr

박원순, 교통요금 인상 한방에 '훅'

메르스 광폭행보 지지율↓

대선주자 1위 자리를 지키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대중교통비 인상 단행 이후 급락했다.

박 시장은 지지율 10%대를 기록하며 4주 만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1위를 내줬다. 앞서 박 시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에 관한 광폭 행보에 보수 단체의 공격이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지지율 상승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지지율 내림세를 면치 못했다.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주간집계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박 시장은 2.5%포인트 하락한 19.6%로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서울(22.7%) △경기·인천(18.9%) △광주·전라(32.1%) 등의 지역과 △20대(25.2%) △30대(27.3%) △40대(22.5%) 등의 연령대에서는 선두를 지켰다.

한편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보수층의 결집과 메르스 진정세 등의 요인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 역시 김 대표의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취임 123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37.3%로 전주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57.1%로 3.2%포인트 하락했다. 정당지지도에서도 새누리당은 전 주 대비 1.5%포인트 오른 38.7%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은 1.6%포인트 하락한 28.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했다. 전화면접(CATI)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50%)과 유선(50%)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조사했다. 응답률은 전화면접 방식이 17.6%, 자동응답 방식이 6.8%였다. 통계보정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윤정원기자

지난달 24일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유인태가 사형폐지법 발의한 이유

74년 민청학련 사형수 경험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냈다. 유 의원은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2012년 1월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6일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국회의원 과반인 총 172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 새누리당 43명, 새정치연합 124명, 정의당 5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제출하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법전에 가둬두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야 한다"며 "이제는 법으로 사형을 폐지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17년이 넘게 사형집행이 중단돼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고 사형존치국은 58개국에 그친다. 국제연합(UN) 역시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천명했고 네 번에 걸쳐 사형집행을 유예하자는 총회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윤정원기자 garden@

단상에서 내려오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과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201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마치고 나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안내로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태산이·복순이 자연방류 기념식 6일 오후 제주 조천읍 함덕리 정주항 인근 해역에서 열린 '남방큰돌고래 태산이, 복순이 제주해역 자연방류 기념식'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에서 일곱번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방류 직전 먹이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훈 前수석, 보석 청구

변호사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변론권 보장 위해"

중앙대학교 역점사업에 각종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전에 열린 박 전 수석 등 7인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 전 수석 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행사하기 위해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현재 계획된 재판일정이 (박 전 수석)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판 관련 기록도 1만5000페이지 가량 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한가지도 아니고 다양한 사안이 걸쳐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을 받기 위해 보석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박 전 수석은 "제가 도의적으로 여러 책임을 지고 있다. 정부 마지막 말기에 대학 자율화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법정에 모여 서로 법리적인 부분을 다퉈야 하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다만 지금 구속돼 정확히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 변호인에게 제대로 소통 되지 않아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박 전 수석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가 난무해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힘들다. 특히 제가 사랑하는 중앙대에 큰 아픔을 줬다.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힐 것이다. 보석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직권남용과 횡령·배임·뇌물수수·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수석의 재판은 매주 월요일 열리며 오는 11월까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천안판 도가니' 교사, 징역 15년 확정

신상정보공개·전자발찌 10년

대법이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이른바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교사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상고이유 주장은 종전 판결에서 이미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해 배척됐으므로 이를 다시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였던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명의 여학생들을 7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학생을 상대로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이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 성추행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은 1심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연미란기자 actor@

"피의자 엎드려진 채 끌고 간 경찰, 인격권 침해"

엎드려진 피의자의 자세를 세우지 않고 끌고간 경찰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는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모(53)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인천 계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씨를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하다 이씨가 항의하며 경찰서 본관 앞에 드러눕자 팔을 잡아당겨 엎드려진 상태로 끌고 갔다.

이씨는 이 때문에 양복 상의가 찢어지고 정강이 앞부분에 찰과상을 입었다. 인권위는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경찰관은 직무 수행 전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과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등을 들어 이씨의 진정을 받아들였다.

/연미란기자

'쌍용차 집회' 민변 소속 변호사들 징역 구형

檢 "욕설·물리력 행사"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김유정(34)·송영섭(42)·이덕우(58)·김태욱(38)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당시 현장에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력까지 행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의 쟁점이자 본질은 행정사건, 민사사건도 아닌 폭력사건이자 형사사건"이라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실력행사를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들은 피해자인 경찰과 서로 합의 하에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채증 영상을 보면 이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움직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집회 목적은 집회 금지장소가 된 대한문 앞 화단에서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시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유·무인 질서 유지선을 설치해 집회장소의 3분의 1 가량 공간을 점거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경찰 직무집행은 질서유지선 설치를 빙자한 집회방해의 범죄 행위"라며 "당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경찰의 집회금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이홍원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The Wealthy- How Far will Government 'Media Suppression Collusion' Go?

재벌-정부 '언론탄압 야합' 어디까지 갈건가

Korea Advertisers Association uses about 11 trillion won annually for advertisement. Among these, 1 trillion won is used on paper media such as the newspapers. Advertising Association can do whatever they want because of the power they have behind their budget.

They know that the fund supporters like Samsung and Hyundai Motors can discipline the media as they please.

The Advertisers Association is busy printing out and spreading the term 'quasi media' and Analogous Press' Argument Report.com homepage main screen states that the Quasi Press should be thrown out of the portal.

3일 오후 4시 현재 반론보도닷컴(한국광고주협회 기관지) 홈페이지에서 검색란에 '메트로'라고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기사 목록. 제목만 봐도 온통 메트로신문을 비난하는 기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한국광고주협회 회원사들의 연간 광고선전비 총액은 대략 11조원에 달한다. 이 중 1조원 정도가 신문 등 종이매체에 할당된다. 광고주협회가 언론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돈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뒷배경에 있는 삼성·현대차 등 돈주인들이 해당언론을 혼내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광고주협회는 실체도 모호한 이른바 '사이비언론', '유사언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뒤 '찍어내기'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5일 반론보도닷컴 홈페이지는 포털에서 사이비언론을 퇴출시켜야한다는 광고주협회의 주장이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반론보도닷컴은 광고주협회의 기관지다.

PAGODA

"보건부 독립·메르스 특별법 제정해야"

의협·병협 '범정부 차원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의료계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한국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보건부 독립'과 '메르스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회견에는 추무진 의사협회장과 박상근 병원협회장 등 양 단체 집행부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회견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료인들은 무거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메르스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모든 가용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메르스 확산저지와 신종 감염병 예방활동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보건의료인 또한 메르스 종식과 환자의 빠른 완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양 단체장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 독립 개편을 강력히 건의한다.

추무진 의협 회장과 박상진 병협 회장은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 조직체계로 인해 신종 감염병 확산의 조기 대응이 미흡했다. 또한 보건의료 관련 부처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등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제도적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협회장은 "지속적인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립과 국민건강 증진,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해 위상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국가 경제활성화와 국민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메르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단체 회장은 "이번 메르스 재난 사태로 인한 국가적·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었다. 따라서 국가경제 회복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요양기관은 메르스 요양기관으로 인식이 굳어져 환자들의 기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해당 요양기관들 뿐만 아니라 지역 요양기관들까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매우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두 협회장은 또 "우리 사회의 메르스 사태 극복과 나아가 국가 경제활성화, 안정적인 진료환경 회복을 위해서는 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이 개선돼야 하며, 나아가 국회 메르스 보상 특위 구성 등 '메르스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 향후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가칭)'범정부 민관협의체'를 출범해 거국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한다.

두 단체 회장은 "국가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예방과 감염병 발생 시의 위기관리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환자 진단, 진료와 격리 등의 선진화, 감염병 첨단 예방관리기술의 연구, 개발 체제 확립 그리고 의료문화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참여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가감염병예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진정한 고민과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힘을 합쳐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해야만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보건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운구되는 중국 버스사고 희생자들의 시신 중국 버스사고 희생자의 시신이 6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을 통해 운구되고 있다. /뉴시스

수출가 1만배 부풀린 中企대표 구속 기소

1000억원대 사기 대출 받아

수출 가격을 1만배나 부풀려 1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중견 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수출 가격을 최고 만 배 가까이 부풀려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TV 케이스 금형업체 H사 대표 조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경리 담당 직원 유모(34)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수법은 지난해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사용한 사기 수법과 구조가 판박이어서 '제2 모뉴엘 사건'이라는 별칭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개당 30달러에도 못 미치는 TV 캐비닛 수출가를 20만달러로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1500억원대의 수출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TV 캐비닛의 개당 원가는 2만원 수준이다.

조씨는 수출지역인 일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처로 위장하고 정상적으로 수출 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몄다. 수출품은 미국에 있는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빈 사무실로 보내 폐기처분했다.

조씨는 이런 수출 실적을 내세워 국내 5개 시중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하고 15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부분을 보강 수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조씨는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회전거래'를 하면서 27억7000만원을 빼내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연미란기자 actor@

'건설사 뒷문' 국토부 공무원, 파면 취소 소송 패소

재판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당연한 퇴직 사유"

건설회사에서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국토부 공무원 A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 사건과 관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국토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2009년 10월 도로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고서 대학 동기인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설계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줬다. 이후 컨소시엄 공사를 따냈고 A씨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A씨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형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2013년 A씨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파면이 결정됐다.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됐으므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위안부 피해자 최금선 할머니 별세… 생존자 48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금선 할머니(90)가 지난 5일 오후 11시20분쯤 별세했다고 밝혔다. 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에 등록된 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48명으로 줄었다.

1925년 출생한 최 할머니는 2007년부터 노인전문병원에서 노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지난달 11일에는 김외한·김달선 할머니가, 24일에는 김연희 할머니가 생을 마감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7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연미란기자

“KT, 무도 등 콘텐츠 무단사용 책임 묻겠다”

MBC “피해 추산액 수백억대… 협상 없을 것”

KT가 MBC 콘텐츠를 무단으로 쓴 행위에 대해 MBC가 엄정대응하겠다고 나섰다.

6일 MBC 관계자는 “자사가 KT의 인터넷(IP)TV에서 1년 간의 무료서비스 기간이 지난 주문형비디오(VDO)를 유료로 판매해야 하지만 무료로 판매한 정황이 있어 KT에게 상세 VOD 이용 데이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MBC와 KT가 작성한 콘텐츠 제공 계약서에는 무한도전과 같은 인기 구작이 3주간의 VOD 사용료를 받고 이후에 1년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표시돼 있다. 그리고 1년 이후 부터는 일정액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KT측은 이를 무시하고 MBC의 인기 구작들을 무단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MBC 그룹유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계약 위반이 의심되니 소명한다는 공문을 1차로 보냈는데 KT측에서는 ‘해당건에 대해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으니 양해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이 왔다면서 “사실상 KT측이 누락건을 시인했다고 보고 확인후 대응을 위한 데이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MBC측은 계약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콘텐츠 제공 계약 사항에는 상세 데이터 요구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거부했을 시, 제공자는 직접 콘텐츠 이용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MBC 관계자는 “직접 열람에 대해 KT측에서 거부하거나 협상을 요할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 추산액이 수백억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협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콘텐츠 제공자로서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콘텐츠 이용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KT를 비롯한 이통사들은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작자 입장에서 아쉬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측은 지상파 방송 재전송료(CPS) 협상, VOD 가격 인상, VOD 트리거 광고(쌍방향 광고) 문제 등에 있어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달 MBC는 KT가 자사 VOD로 ‘트리거 광고’를 무단으로 진행했다고 KT 측에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KT 황창규 회장.

내맘대로 골라보는 고화질 HD TV!
올레 TV
olleh tv

온라인마켓 모바일 매출 급증

‘생활형 엄지족’ 증가… 온라인 구매 활성화로 웹 매출 웃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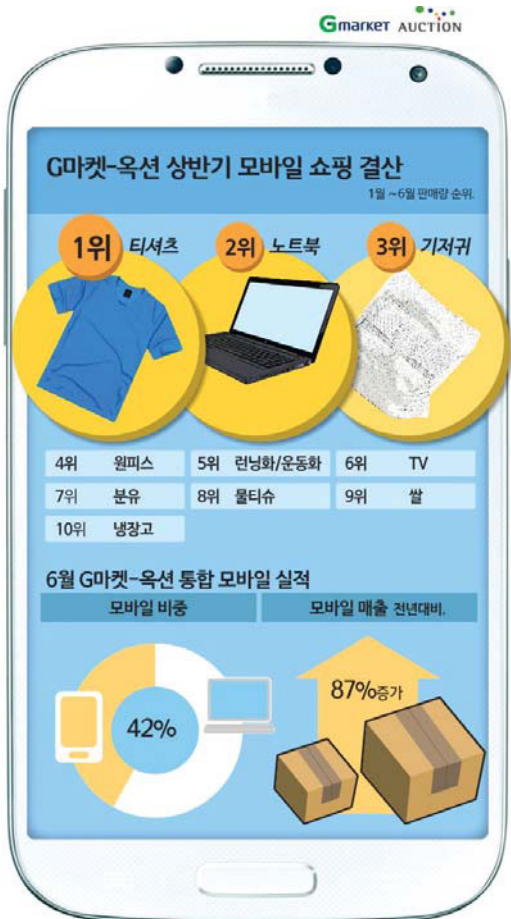
온라인마켓 업계 내에서 모바일 매출이 웹을 웃돌기 시작했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대표 변광윤)가 6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매출 분석에 따르면 G마켓과 옥션의 모바일 판매 비중은 전년 27% 수준에서 올해 46%까지 증가했다. G마켓의 경우는 6월 한 때 모바일 비중이 50%를 넘어 웹 매출을 넘어서기도 했다.

모바일 매출의 주요 품목은 티셔츠와 노트북이 각각 1위·2위를 차지했다. 3위는 기저귀로 조사됐다. 그 뒤를 원피스·런닝화와 운동화·TV·분유·물티슈·냉장고가 뒤를 이었다.

11번가(대표 서진우)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11번가 측에 따르면 지난해 31% 수준이던 모바일 매출 비중은 올해 40% 내외 까지 예상된다. 11번가 내 큐레이션 쇼핑인 ‘쇼킹딜’의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60%에 달했다.

특히 모바일 사용자중 남성이 37%, 여성이 63%를 차지해 여성고객의 모바일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인기 품목은 물과 샤오미 보조패터리가 각각 1위·2위를 차지했다. 이어 패션양말이 3위, 타이어·세탁기·냉장고·E-쿠폰·티셔츠·원피스 등이 뒤를 이었다.

11번가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생활형 엄지족’ 증가로 인해 모바일을 통한 생필품 구입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11번가 심석 모바일사업그룹장은 “올 상반기에는 샤오미 보조배터리, 탄산수, 패션양말 등 트렌디한 아이템을 찾는 2030 소비자들이 증가했다”며 “타이어, 세탁기, 냉장고 등 오프라인에서 주로 구매가 이뤄지던 제품이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온라인 구매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

“그리스사태 따른 금융시장 대비할 것”

정부, 대응 방안 논의

정부가 그리스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키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주형환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그리스사태’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태종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는 그리스의 국민투표 이후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가 커진데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이날 새벽 1시께 마무리된 국민투표의 출구 조사 결과 그리스 국민은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채권단이 제안한 구제금융 협상안을 거부하자는 ‘반대’ 쪽에 압도적으로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당초 시장 예상과 달리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향후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리스 문제의 경우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유로존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관계 등이 얽혀있는 만큼 해결과정이 장기화되고 향후 상황도 현재 시장의 대다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면서 “조금 더 멀리 보고 긴 호흡으로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정부는 “ECB의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 증액 여부와 독일·프랑스 등 채권단의 향후 입장변화 가능성 등에 주목해야 한다”며 “그리스 문제가 주변국으로 확산될지 여부와 美 금리인상, 중국 등 신흥시장 불안 등과 결부되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꼽았다.

아울러 “발생가능한 모든 것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상황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와 시장안정 조치에 있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의견을 조율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관계기관은 그리스 사태와 여타 대외위험요인에 따른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외환·금융시장 등 일반적인 파급경로 외에 실물경제를 포함한 모든 발생가능한 상황을 상정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비상 대응조치를 미리 점검하고 조율함으로써 유사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에 실기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은 역시 “그리스 사태로 인해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리스 사태 전개 추이와 금융·외환 시장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 시 정부와 협조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신한금융,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박차'

전계열사, 中·亞 중심 영업망 강화 속도
신한생명·신한카드, 첫 해외 공략 시동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시장을 벗어나 전방위적인 해외진출에 나섰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시장을 선택,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을 필두로 카드, 보험사까지 전계열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신한銀, 지난해 해외 수익 1억 돌파…"해외 비중 10%까지 확대할 것"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용병 신한은행장의 글로벌 행보다.

지난 3월 취임한 조 행장은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해외영업망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 직원을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등 해외 시장 안착을 위한 연착륙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베트남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금융벨트를 다지고 두바이와 멕시코, 필리핀 등 유망 시장에도 거점을 구축해 올해 말까지 18개국 82개 네트워크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이날 13번째 채널인 타이응웬지점을 개점했다.

이로써 신한베트남은행은 외국계 은행 중 가장 많은 채널을 보유한 HSBC에 2개 차이로 근접하게 됐다. 손익 역시 작년기준으로 HSBC와 100만 달러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

신흥국에 대한 지원과 인재 채용도 활발하다.

지난 4일 신한은행은 미얀마정부로부터 미얀마 농촌 현대화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과 감사패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올 초 미얀마 농촌에 농기계 공급을 위한 미얀마 정부와 중장기수출금융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장기 저리의 외화대출을 지원해 미얀마 현지에 농기계를 보급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글로벌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진출한 해외국가 출신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턴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신한생명-신한카드, 첫 해외진출…"글로벌 '신한' 박차"

계열사의 해외진출도 주목받고 있다.

신한생명은 지난달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롯데센터에서 주재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베트남 하노이 주재사무소는 신한생명의 첫 글로벌 진출 사업으로 지난 1일 베트남 재무부로부터 주재사무소 개소 인가를 받았다.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은 "하노이 주재사무소의 개소를 발판으로 베트남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현재 베트남 재무부 및 보험개발원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보험요율 선진화 사업'처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카드 역시 글로벌 시장을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신한카드는 지난 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자사 1호 해외법인인 '신한파이낸스' 개소식을 갖고 현지 영업을 개시했다.

해외법인인 '신한파이낸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7개월간 현지 직원 채용과 메이저 자동차 딜러사와 제휴를 맺는 등 금융영업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카자흐스탄은 1인당 GDP가 1만4000달러 수준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안정돼 향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라며 "1등 신한카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신흥시장에 선진금융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려 '글로벌 신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전국 8대 워터파크 최대 50% 할인

하나카드, 휴가철 이벤트

하나카드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전국 8대 워터파크 S라인 할인이벤트'를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 평창의 블루캐니언 ▲홍천 오션월드 ▲경기도 이천 테르메덴 ▲부천 웅진플레이도시 ▲충남 예산의 리솜스파캐슬 ▲경북 경주의 블루원 워터파크 ▲경남 김해의 롯데워터파크 ▲전남 여수의 디오션 워터파크 등 8곳에서 펼쳐진다.

할인율은 20%에서 최대 50%에 이르며 현장 결제시 이용가능하다.

우선 이달 말까지 롯데워터파크에서는 본인회원의 경우 50%, 동반 3인까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션월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10월 4일까지 본인포함 4인까지 30% 할인받을 수 있다.

테르메덴의 경우 7월 12일까지 3만원에 본인포함 2명까지 입장가능하다. 또 추가 2명은 40% 할인되는 특별 이벤트도 한다. 특별 이벤트 이후에도 내년 2월 28일까지 본인포함 4인까지 40% 할인혜택을 계속 제공한다.

웅진플레이도시에서는 내년 4월 24일까지 본인포함 4인까지 20% 할인된다. 휘닉스파크 블루캐니언에서는 11월 30일까지 본인포함 4인까지 30% 할인 혜택을 준다.

아울러 블루원 워터파크와 리솜스파캐슬, 디오션 워터파크에서는 내년 6월 5일까지 할인 이벤트를 연다.

블루원 워터파크는 본인포함 4인까지 30%할인, 리솜스파캐슬은 본인포함 4인까지 20%할인, 디오션 워터파크는 본인포함 2인까지 30%할인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여름철 필수 놀이시설인 전국 유명 워터파크에서 하나카드 고객만을 위한 차별화된 할인이벤트를 마련했다"면서 "고객들의 카드사용 패턴을 철저히 분석해 적시적소에 꼭 맞는 실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 금융위원회는 6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2차 회의를 열고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초부터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업권의 비슷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가동된다. /금융위 제공

친애저축銀 → JT친애저축銀, 새출발

J트러스트, 브랜드 통합
JT캐피탈 상장계획 발표

6일 '친애저축은행'이 'JT친애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함에 따라 J트러스트(JTRUST) 그룹의 JT친애저축은행, JT캐피탈, JT저축은행 3개사가 JT브랜드로 통일하게 됐다.

J트러스트는 브랜드 통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창출하는 한편 JT캐피탈을 지주사로 해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병묵 JT친애저축은행 대표는 이날 사명변경을 기념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까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해왔던 3개사가 JT로 통일되면서 각 사업영역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트러스트 그룹은 JT브랜드로 통일한 3개 계열사가 우수한 인력과 금융인프라에 강점을 지닌 한국, 다양한 금융모델과 고객보호장치를 갖춘 일본의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된 브랜드 계열사들의 지주사 역할은 JT캐피탈이 맡는다.

윤종호 JT캐피탈 대표는 "계열 3사간의 협력을 통해 우량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JT캐피탈이 지주회사로서 그룹의 도약·성장의 센터 역할을 하게 된 것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J트러스트 그룹은 지난 3월 현재 총자산 5407억엔, 26개 계열사를 거느린 일본 종합금융그룹이다. 금융사업을 주력으로 해외사업, 부동산 사업, 어뮤즈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에 본격 진출한 시점은 지난 2012년. 당시 미래저축은행을 P&A(자산·부채인수)방식으로 인수해 친애저축은행을 설립, 이후 JT캐피탈, JT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총 자산 약 2조 2000억원의 회사로 성장해왔다. /김보배기자 bobae@

은행이 아파트 분양을?… 주택사업 주체 다양화

NPL사업장·지역주택조합 등 인기몰이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주택사업에 뛰어드는 주체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개발은 시행사·시공사와 같은 주택·건설업체들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과는 관계없는 금융기관을 비롯해 수요자가 직접 사업주체로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경기도 화성시 기산2지구에 '신동탄 SK뷰파크 2차'를 분양 중이다. 지난 5월 분양해 전용면적 59㎡는 완판됐고 현재 84㎡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다.

해당 단지는 애초 임광토건이 맡아 사업을 추진하던 곳이다. 임광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중단됐다 주채권은행인 NH농협은행이 시공사 교체와 추가자금 지원에 나서면서 정상화됐다.

NH농협은행은 앞서 2013년 5월 SK건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같은 해 11월 '영통 SK뷰'를 분양해 조기에 마감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처럼 금융기관이 부실 아파트 현장을 정상화해 분양하는 'NPL(부실채권) 사업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NPL사업장은 금융기관이 단순 자금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대주단·시공사 등과 함께 개발사업 주체로 나서는 현장을 말한다. 시공사의 워크아웃·법정관리 등으로 부실채권화된 사업장을 은행이 직접 인·허가를 추진하고 추가자금을 투입해 정상화한 후 분양한다.

금융위기 직후만 해도 이 같은 NPL사업장은 매각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1~2년 전부터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직접 사업에 뛰어드는 일이 많아졌다.

경기도 화성 '신동탄 SK뷰파크 2차'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이 청약 상담을 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꼼꼼한 회계실사와 시장조사를 통해 우수한 사업장으로 판정된 곳에 한해 진행, 사업의 회생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서 공급된 'e편한세상 화성' 역시 KDB산업은행이 정상화를 추진해 2개월 만에 계약을 완료했다.

수요자가 직접 사업주체가 돼 DIY(Do It Yourself) 방식으로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인기다. 지역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까지 짓는 구조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이들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청약통장 없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일반 분양에 비해 문턱이 낮다. 또 수요자(조합)가 토지와 시공사를 직구하는 만큼 금융비용과 각종 부대비용도 줄어든다.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도 10~30% 저렴하다.

다만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실패하는 경우 모든 부담을 조합원이 져야 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아파트 개발주체가 다양해지는 만큼 수요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가격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가격으로 1~2년 새 열풍이 불고 있는데 개발이익이 큰 만큼 리스크도 커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내달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분양

대림산업, 761가구 공급

대림산업은 오는 8월 경기 양주신도시에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를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양주신도시 A-11(2)블록(양주시 옥정동 산167-3)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8개동, 총 761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별로는 ▲74㎡ 281가구 ▲84A㎡ 284가구 ▲84B㎡ 46가구 ▲84C㎡ 50가구 ▲84D㎡ 100가구 등으로 전 가구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양주신도시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일대 약 1,100만㎡ 부지에 조성되는 경기 동북권 최대 규모의 신도시다. 이는 판교신도시의 1.2배, 위례신도시의 1.7배 규모로, 수용인구 16만명, 총 5만8000가구가 입주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개통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의정부~동두천)를 이용하면 의정부IC까지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투시도.

/대림산업 제공

향후 서울지하철 7호선 북부연장(예비 타당성 검토 중), 서울~포천 간 고속도로(2017년 완공 예정),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0년 완공 예정), 양주신도시~서울 노원역 간 무정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2020년 개통 예정) 등 교통망이 순차적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단지 내부에는 자연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 커뮤니티시설 등이 들어선다.

단지 중앙에 실개천, 어린이놀이터 등이 어우러진 공원을 조성해 주거 쾌적성을 높이고 지상주차를 최소화한 보행자 위주의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공원과 연계한 지하 선큰광장에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 주민회의실, 라운지카페 등이 들어선다.

아파트 내부에는 대림산업이 특허를 출원 중인 층간소음 차단 기술과 단열 설계가 도입된다. 거실과 주방공간의 바닥 차음재를 일반적인 바닥차음재(30㎜)보다 2배 두꺼운 60㎜로 적용됐다. 집안의 모든 면에 끊김이 없는 단열 설계를 도입해 결로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했다.

분양홍보관은 경기 양주시 광사동 651-6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7년 하반기 예정이다.

/김형석기자

삼성물산 1위 지위 '흔들'

2분기도 실적 감소 예상
작년 동기比 43.6% 감소

국내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이 국내외 수주액 감소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하락하고 있다. 최근 저유가에 따른 중동발주 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주택사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6일 국내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819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1453억원) 대비 43.6% 감소한 수치다.

삼성물산은 앞서 올 1분기에도 영업 488억원(전년 대비 57.7% 감소)을 기록하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투자은행 업계는 삼성물산의 최근 실적 부진이 호주 로이힐 광산 프로젝트 수주 이후 공백현상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지난 2013년 3월 수주한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는 58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광산 공사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로이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 해외수주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6일 기준 올해 삼성물산의 해외수주액은 9억7991만 달러다. 이는 전년 동기(24억7193만 달러)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13년(96억1661만 달러)과 비교하면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수주도 녹록치 않다.

삼성물산은 최근 국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한건도 수주하지 않았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수주 등으로 올 상반기 총 5조1216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올 목표치(15조7000억원)의 32.6%에 그쳤다.

이는 10대 건설사들이 연초 계획과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이들 건설사는 연초보다 3만2000가구 이상 공급을 늘렸다.

GS건설의 경우 애초 1만7889가구에서 2만5139가구로 공급물량을 늘려 잡았다. 대우건설은 2만505가구에서 3만1580가구로 분양 물량을 확대했다. 현대산업개발도 1만5673가구에서 2만3480가구로 주택 공급 계획을 늘렸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 이후 이렇한 수주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에 세종시 자체 주택사업 종료와 삼성전자 등 계열사 대형물량도 완료됐다"며 "이 때문에 이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도 동반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분기부터는 계열사 물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까지는 실적 정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현대건설, 음식폐기물로 車연료 생산기술 개발

하수 찌꺼기나 음식 폐기물을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현대건설과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최초로 하수 찌꺼기나 음식 폐기물을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환경신기술(472호) 인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기술은 하수·음식물 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천연가스 차량 연료로 사용 가능한 '바이오메탄'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현대건설은 바이오 에너지가 차량 연료나 도시가스 등에 활용될 경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약 1조7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하수 찌꺼기나 음식 폐기물은 마땅히 활용할 곳이 없어 버리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이번 기술 개발로 버려지던 폐기물을 재활용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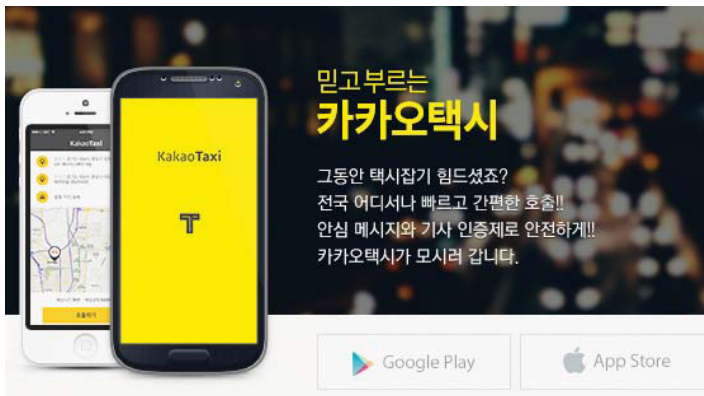
'되는 집' 다음카카오, 신사업 기대 주가

| 마켓인사이트 |

지난달 23일부터 연일 상승세
코스닥 시총 1위 바짝 추격
증권가 "주가 상승동력 풍부"

'다음카카오'가 신규사업의 잠재력과 해외시장 진출 기대감에 훨훨 날아오르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주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랠리를 펼쳤다. 당시 10만7000원이던 주가는 지난 3일(종가 기준) 13만9200원까지 치솟았다. 전월 저점 대비 기준으론 30.8%나 급등했다.

이 같은 상승세 덕분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과의 격차도 좁혀졌다. 다음카카오의 시총은 지난 3일 기준 8조3000억원으로 셀트리온 8조9000억원과의 격차를 6000억원까지 줄였다.

최근 주가가 상승한 것은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카카오의 잠재력, 카카오택시의 호조세, 인터넷 전문은행 가능성 등 신규 사업의 폭발적 잠재력이 넘쳐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택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연내 프리미엄서비스 유료 모델 론칭이 예정돼 있다"면서 "카카오대리운전과 카카오퀵 등 인접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카카오TV와 숍검색, 카카오검색도 론칭한 바 있다.

성 연구원은 "최근 주가는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을 각오하고도 카카오택시와 숍검색 등의 기대감을 바탕으로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며 "카카오와 결합한 이후 신규 서비스 창출 등으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프리미엄 요인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일 호출 수가 15만건을 돌파하는 등 인기에 힘입어 누적 호출 수가 500만건을 넘었다. 지난달 15일 누적 호출이 300만을 돌파한 지 약 21일만이다.

이동륜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카카오는 6월 중순 '카카오TV' 출시에 이어 지난주 '카카오 샵(#) 검색'과 '카카오 채널'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카카오 플랫폼의 콘텐츠와 검색 부문을 모두 강화했다"며 "카카오톡의 트래픽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모바일 동영상 광고와 검색광고 부문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익성 제고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3월 출시한 카카오택시의 경우 하반기 중 고급형 택시 호출 앱을 출시하면서 신규 수익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마케팅 비용 상승에 따른 실적 성장성 둔화가 우려되나, 외형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수익화 계획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의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채널이 다음카카오의 핵심 수익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카카오채널의 본격적인 유료화와 기타 서비스 출시로 본격적인 이익 개선 효과는 4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시장 진출 역시 본격화할 방침이다.

성 연구원은 "다음 웹툰의 중국 시장 진출 등 해외시장 진출 모멘텀도 풍부하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보다 모멘텀(상승 동력)에 주목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생활 속 투자 아이디어, 퀴즈로 푼다

대신증권 크레온

내달 16일까지 '삼시세퀴'
여행상품권 등 경품 다양

대신증권 크레온이 일상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크레온은 실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일들이 좋은 주식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퀴즈형식으로 알아보는 이벤트 '삼시세퀴-주식투자편'을 다음달 16일까지 진행한다.

주식투자퀴즈는 엔터테인먼트, 뷰티&헬스, IT&게임, 사회, 라이프스타일 등 총 5개 분야에서 출제된다. 1개 분야의 퀴즈만 풀어도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5개 분야 모두 참여할 경우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이벤트 기간 중 퀴즈를 풀고 크레온 신규계좌를 개설하면, 50개의 신규계좌가 개설될 때마다 1명씩 추첨해 100명에게 총 1억원의 투자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주식투자퀴즈, 출석퀴즈, 크레온 체험마을 등 홈페이지에 준비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휴대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삼시세퀴 홈페이지(www.creonquiz.com)에서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월 20일 크레온 홈페이지와 삼시세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상원 크레온영업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누구든지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게 위해 기획됐다"며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하는 고객들이 삼시세퀴 이벤트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보배기자

철강, 오랜만에 훈풍… '가격 협상' 관건

건설업 호황에 회복세 전환
3분기 실수요 출하가 관심

올해 1분기까지 부진했던 철강 산업이 건설업 호황에 힘입어 2분기 실적에서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오랜만에 찾아온 철근 수요 회복세에 탄력이 붙게 될지, 건설업계와 협상 중인 '철근 가격 인상'이 주요 변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요 제강사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 한국철강은 전일 대비 6.75% 오른 5만3000원을 기록했다. 장중 한때는 5만78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찍었다. 대한제강은 전일보다 5.79% 오른 91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역시 장중 한때 9290원을 기록, 연고점을 돌파했다.

동국제강은 전 거래일 대비 1.06% 오른 5700원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현대제철만이 자동차 강판 가격 동결과 판매부진 요인에 따라 전일 대비 4.40% 내린 6만3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의 올해 1분기 철근 구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평균 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포스코건설의 1분기 철근 구매량이 전년보다 101% 가량 급증했고, 대림산업(36.81%), 현대건설(18.79%), 삼성물산(20.59%), GS건설(2.72%) 등도 일제히 올랐다.

철강 산업이 건설업 호황에 힘입어 2분기 실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전망이다. 철근 수요 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건설업계와 협상 중인 '철근 가격 인상'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연합뉴스

철강업계는 공급 과잉, 해외 수입규제 강화, 환경규제 등 3중고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분양시장 활성화에 따라 건설사들이 철근 구매량을 늘리면서 철근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말 55만톤 수준이던 국내 철근 재고가 5월말 30만톤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 7대 제강사들의 현재 보유재고는 13만톤 수준으로, 지난 2008년 9월 이후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철근 공급부족 현상은 유통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5월 중순 톤당 52만원까지 하락했던 유통가격은 최근 톤당 60만원까지 오르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박성봉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까지 부진했던 철근 내수판매가 5월에는 전년 대비 6.6% 오른 93만톤을 기록했다"며 "지난달에도 주요 제강사들의 공장이 풀로 가동된 점을 감안하면 90만톤 이상의 높은 판매량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이어 "2분기 기대 이상의 철근 공급부족과 유통가격 상승으로 제강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당초 예상을 초과할 것"이라며 "현재 국내 대규모 주택 분양을 감안하면 내년 1분기까지 철근수요가 이어지면서 제강사들의 수익성 개선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의 관심은 3분기 실수요 출하가격 협상결과에 쏠리고 있다. 제강사와 대한건설사자재직협회는 지난달 철근값 인상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막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바 있다.

박 연구원은 "유통가격 상승, 철근 공급부족, 하절기 전기요금 할증 등 이유로 제강사들의 기준 가격 인상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며 "긍정적인 협상 결과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김보배기자 bobae@

SK그룹 CEO, 中서 메르스 극복 세일즈

SK네트웍스 사장 등 방중 언론·포털서 韓 관광 당부

SK그룹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소비심리 위축·외국인 관광객 급감 등 내수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룹 최고 경영진이 일선에서 뛰고 있다.

6일 SK에 따르면 김창근 SK수펙수추구협의회 의장 등 최고경영진이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미 시행중인 메르스 대책과 별도로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 등 주력 계열사 경영진이 중국을 찾아 한국 세일즈에 나섰다.

SK그룹이 메르스사태 해결을 위해 전사적으로 나선 것은 내수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2조5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민간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는 김 의장 등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K그룹 경영진과 중국 인민일보의 해외망 경영진이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면담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순즈창 SK차이나 대표, 쉬레이 인민일보 해외망 부사장,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 야오샤오민 인민일보 해외망 사장, 김영광 SK글로벌성장위원회 전무. /SK그룹 제공

이런 가운데 SK그룹 주력 계열사 경영진은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중국으로 날아갔다.

메르스 사태 후 중국인 입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고, 항공편 운항취소 90% 가까이가 한·중 노선에 집중될 만큼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관광업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3000억원을 관광업계에 투입키로 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SK그룹 경영진을 대표해 문 사장, 순즈창 SK차이나 대표, 배선경 워커힐호텔 총괄, 김영광 SK글로벌성장위원회 전무 등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최대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업체를 방문했다.

문 사장 등은 이날 오전 중국의 최대 매체인 인민일보를 찾아 해외망의 야오샤오민 사장, 쉬레이 부사장 등을 접견한 데 이어 환구시보의 우제 부사장, 리잰 집행부사장, 띠제 영업부주임 등 언론인을 만났다. 오후에는 중국의 최대 포털인 바이두를 방문해 바이보 부사장 등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사장은 "최근의 메르스 사태는 한국 정부와 의료계, 전 국민들이 혼연일체로 노력한 결과 대부분 진정된 상태"라며 "한국 정부와 관광업계가 중국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한국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중국 언론과 인터넷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사장 일행의 협력 요청에 인민일보, 환구시보, 바이두 등의 경영진은 양국이 그동안 보여준 협력관계에 맞게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한 국내 내수경기 침체는 관광, 호텔, 숙박, 요식업 등 특정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기업시민으로서 SK그룹은 헌혈,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한국관광 IR 등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고사양 작업도 거뜬… 삼성전자 2TB SSD 출시

읽기속도 높인 850 시리즈 2종

삼성전자가 6일 3차원 V낸드 기반 소비자용 SSD '850 시리즈'의 2테라바이트(TB) 모델(사진)을 세계 50개국에 선보이고 대용량 SSD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번에 출시되는 2TB SSD 모델은 2세대(32단 적층) V낸드와 독자 개발한 전용 컨트롤러, 2기가바이트(GB) LPDDR3 D램이 탑재됐다.

두께는 V낸드를 128개 탑재했음에도 기존과 동일한 7㎜를 제공, 2.5인치 알루미늄 케이스로 디자인해 호환성도 뛰어나다. 매일 80GB를 사용할 경우, 최장 10년 동안의 사용 보증 기간도 보장한다.

성능은 850 PRO 모델을 기준으로 520메가바이트(MB/s)의 연속쓰기와 550MB/s의 읽기 속도를 지원, 터보라이트 모드 시에는 9만 아이옵스(IOPS)의 임의쓰기 속도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고용량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엠사타(mSATA)', '엠닷투(M.2)' 라인업에서도 대용량 모델을 출시하며 소비자용 SSD 시장에서 고용량 V낸드 SSD로 수요를 빠르게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다.

김언수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브랜드제품마케팅팀 전무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V낸드 기반 소비자용 SSD 출시를 통해 500GB 이상 대용량 SSD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 빨라졌다"며 "이번 2TB 모델 출시로 테라급 SSD가 시장의 메인 제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양성운기자 ysw@

스크래치 1회 무상수리… 기아차, 고객마음 훔친다

차량유지비 반값 등 서비스

기아자동차는 할부 프로그램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 혜택을 접목한 '기특한 고객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기아차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닝, 레이, 프라이드, K3, K3 쿱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크래치 보상 서비스란 차량 출고 후 6개월간 1회에 한해 차량 전·후방 범퍼, 전면유리, 사이드미러에 스크래치가 발생했을 때 최대 30만원까지 무상으로 수리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아차는 '맞춤형 할부'를 이용해 기아 승용과 레저용차량(RV)을 구매하는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여성 케어 서비스'도 실시한다.

여성 케어 서비스는 출고 후 1년간 ▲집까지 차량을 찾아오고 가져다주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 2회 ▲26개 항목의 정기점검 서비스 1회와 케어 키트 제공 등의 혜택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자유형 할부'를 통해 기아 승용, RV, 봉고 트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환스케줄 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환스케줄 조정서비스는 할부 기간 중 연간 1회 최대 2번에 걸쳐 월납입금 결제를 연장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아차는 K5 하이브리드(HEV) 500h, K7 HEV 700h차량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유지비 반값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량 유지비 반값 할인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자동차정비 ▲하이패스 ▲자동차세 ▲공영주차장 ▲세차 등의 차량 유지 관련 금액의 50%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다. /정용기기자

장재훈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전무(왼쪽), 매트 카미엔스키 PGA투어 부사장이 '2015 프레지던츠컵' 후원 협약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올 PGA 프레지던츠컵 공식車 '현대차'

제네시스 등 67대

현대자동차는 미국프로골프투어(PGA투어) '2015 프레지던츠컵'에 공식 차량을 후원한다.

현대차는 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장재훈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전무와 매트 카미엔스키 PGA투어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프레지던츠컵은 1994년 미국 PGA투어의 주도로 설립됐다.

미국팀과 인터내셔널팀의 골프 대항전으로 개최국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명예의장을 맡는 전통이 있는 대회다.

또 대회의 상금이 없는 대신 대회 수익금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프레지던츠컵은 1994년 첫 대회 이후 현재까지 약 329억원에 달하는 자선금을 기부했다.

'2015 프레지던츠컵'은 오는 10월6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개최된다.

현대자가 지원하는 차량은 ▲제네시스 등 승용 29대 ▲싼타페 등 레저용차량(RV) 6대 ▲스타렉스 등 승합차 30대 ▲버스 2대 등 총 67대로 경기 기간 동안 관계자·참가선수·관람객들의 의전에 활용된다.

현대차 측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프레지던츠컵에 공식 차량을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선수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美 판매 부진에 몸값 낮춘 삼성·LG TV

플래그십TV 최대 반값 등 시장 지배력 유지 '안간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시장에서 플래그십 TV의 가격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양사는 2분기부터 본격 출시한 전략형 신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면서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SUHD TV의 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미국시장에서 SUHD TV 판매가격을 대폭 인하했다. 현재 미국에서 커브드 SUHD TV(JS9000 모델 기준)의 48인치 가격은 기존 3999 달러에서 1999 달러로 떨어졌다. 55인치도 4999 달러에서 2499 달러로, 65인치 역시 5999 달러에서 3499 달러로 가격을 내렸다.

삼성전자 SUHD TV

LG전자 올레드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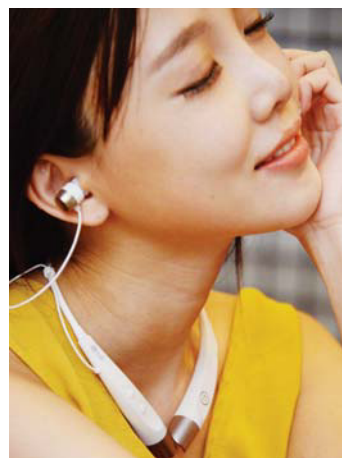
LG전자 올레드 TV의 판매 가격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65인치 초고선명(UHD) 제품(65EG9600)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의 권장소비자가격은 8999 달러지만 아마존 등 온라인 마켓에서는 2000 달러가 싼 6999 달러에 팔리고 있다. 소비자가 5499 달러짜리 55인치 UHD 올레드 TV(55EG9600)도 4499 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양사가 프리미엄 TV 모델의 할인 폭을 확대하는 것은 시장 침체로 판매부진 돌파와 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TV 시장은 침체를 거듭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1~6월 글로벌 TV 판매는 9900만대 수준이다. 상반기 판매량이 1억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9년 상반기(8800만대) 이후 5년 만이다.

시장의 부진속에 삼성전자와 LG전자 TV 사업도 상반기에 초라한 성적표를 손에 넣었다. 1분기에 양사는 나란히 TV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2분기에 삼성전자는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긴 수준이고, LG전자는 또 다시 적자를 낸 것으로 증권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경쟁이 치열한 중·저가 TV 시장에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프로모션과 가격 인하 등 프리미엄 TV 시장의 지배력 확대를 통해 판매와 이익 확대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LG전자 모델이 'LG 톤플러스(HBS-500미니)'를 착용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

미니 블루투스 헤드셋 출시 29g 초경량… 女 신체 최적

이 제품은 기존 'LG 톤플러스' 시리즈보다 넥밴드(목에 두르는 형태) 길이를 2㎝ 줄여 22㎝, 무게도 약 3g을 줄여 시리즈 중 가장 가벼운 29g을 완성했다. 상대적으로 목 둘레가 얇고 무게에 민감한 여성 고객에게 인체공학적으로 최적의 착용감을 제공한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LG전자는 이 제품 디자인에 초점을 맞췄다. 화이트와 골드 두 가지의 간결한 색상을 입히고, 손이 많이 닿는 하단 부분은 사선무늬로 처리해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게 했다. 또 전원·통화·재생을 한 버튼에 통합해 볼륨 업·다운 버튼 포함 단 3개의 버튼으로 모든 조작을 가능하게 했다.

'HBS-500'은 다양한 최신 기능을 지원한다. '블루투스 4.1'을 내장해 '블루투스 3.0' 대비 낮은 전력으로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VoLTE(고품질 음성통화서비스) 통화가 가능하고 'MEMS(미세전자기계시스템) 마이크'를 탑재해 소모전류를 낮추고 통화시 노이즈 제거 기능을 향상시켰다.

LG전자는 'HBS-500'를 온라인(오픈마켓)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소비자 가격은 7만9000원이다.

/조한진기자

헤르메스 먹튀 논란… 증권가 "투자 목적 일 것"

삼성정밀화학 지분보유 뒷말에 삼성-엘리엇 분쟁과 무관 분석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반대를 선언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삼성의 지분 가치평가 논란이 엉뚱하게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로 옮겨 가고 있다.

엘리엇은 '주주가치'와 '공정성'을 문제로 내세우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두고 삼성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물산 주주들은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ISS는 "삼성물산 주주들은 오는 1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주식 전량 인수에 반대해야 한다"며 "합병 후의 잠재적 시너지는 삼성물산의 저평가 문제를 보전해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 후의) 매출 목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이번 거래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3일 헤르메스가 국내 법무법인 넥서스를 통해 삼성정밀화학 주식 129만5364주(5.0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면서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2004년 헤르메스가 삼성물산 주식으로 약 380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를 들추며 일각에서는 엘리엇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엘리엇이 주장한 합병 비율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먹튀'를 준비하는 모양새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국내 증권가는 헤르메스가 삼성정밀화학의 지분을 매입한 것은 철저히 '투자 목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엘리엇과 삼성의 분쟁과 연결짓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정용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정밀화학의 매출과 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특히 대표 '캐시카우' 염소·셀룰로스 부문의 실적 회복으로 외국인 매수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르메스가 삼성정밀화학 지분을 늘리면서 삼성 흔들기가 본격화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헤르메스의 (삼성정밀화학)투자는 엘리엇과 삼성의 합병 문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학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삼성정밀화학이 최대주주인 삼성SDI에 공급하는 물량을 늘리면서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양성운기자 ysw@

쌍용차, 티볼리 '디젤'로 만난다

복합 연비 15.3km/ℓ 판매가 2045만원부터

"티볼리 디젤은 한국지형과 주행환경에 최적화된 파워트레인,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 합리적인 가격을 갖췄다."

신영식 쌍용차 마케팅 본부장은 6일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린 티볼리 디젤(사진) 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쌍용차는 디젤 엔진을 장착한 티볼리로 가솔린 모델과 더불어 소형 SUV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혀간다는 전략이다.

신 본부장은 "티볼리 가솔린 모델은 신차효과를 넘어서 올해 상반기 1만8524대가 팔렸다. 하반기에도 디젤, 가솔린 모델은 독립적인 세그먼트로서 판매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쌍용차는 티볼리에 장착된 배기량 1597cc 디젤 엔진을 코란도C에 장착 여부를 시험하고 있다.

쌍용차는 3년여의 개발기간을 통해 완성된 고성능·고효율의 유로6 e-XDi160 엔진을 티볼리에 탑재했다. 최고출력 115마력, 최대토크 30.6kg·m 성능을 낸다.

티볼리 디젤은 1500~2500rpm 구간에서 최대토크를 발휘해 빠른 응답성과 경쾌한 주행성능을 발휘한다. 아이신사의 6단 자동변속기도 장착돼 주행의 재미를 더했다. 복합연비는 15.3km/ℓ(2륜, 자동)다.

판매 가격은 2045만~2495만원에 책정됐다. 디젤 모델은 가솔린 대비 250만원 정도 인상됐다.

트림에 따라 ▲TX 2045만원 ▲VX 2285만원 ▲ LX 2495만원이다.

/인제=정용기기자 yonggi@

"휴가전 차량 무상점검 받으세요"

수입차업계 서비스 시작 유상수리땐 부품 할인도

여름철을 맞아 수입차 업계가 고객들을 위해 무상 차량 점검 서비스를 시작했다.

6일 각사에 따르면 푸조와 시트로엥의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오는 20일까지 2주간 '2015 푸조·시트로엥 썸머 캠페인'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여행을 계획한 고객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기획됐다.

대상은 국내에서 공식 판매된 푸조와 시트로엥 전 차종이며 점검 항목은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엔진 냉각수, 외부 벨트 등 총 37개다.

볼보자동차코리아도 이날부터 25일까지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을 벌인다.

이 기간에 엔진오일 교환 고객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유상 서비스 구매 고객에게는 이용 금액에 따라 볼보자동차의 라이프 스타일 컬렉션 액세서리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아우디 코리아는 오는 13일부터 한달간 아우디 전 차종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여름철 서비스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 기간에 아우디 차량 소유주는 전국의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냉각수·타이어·제동장치·전자장치 등 30가지 필수 항목에 대한 점검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고객이 유상 수리를 원하면 해당 부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고 아우디 측은 전했다. /정용기기자

KB금융그룹

애플發 '손목 위 전쟁'에 맞서는 삼성·LG

애플워치, 총 54종류로 소비자 취향 공략
기어S·워치어베인 LTE, 독자적 이용가능

조용했던 국내 스마트워치 시장이 애플워치 국내 출시로 재점화 되는 분위기다.

애플보다 앞서 국내에 스마트워치를 출시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기존 제품으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지만 애플의 인기에 맞서 신제품 출시 등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애플워치'를 비롯해 삼성전자 '기어S'와 LG전자 '워치 어베인 LTE'가 국내 스마트워치 시장을 이끌고 있다.

애플워치가 국내에 출시된 첫 날인 지난달 26일 명동점 프리스비에는 새벽 6시 전부터 300여명의 고객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애플워치의 이러한 뜨거운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

프리스비 한 지점의 직원은 "애플워치가 출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재도 재고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전했다.

애플워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기본형', 알루미늄 재질의 '스포츠', 18K 금장 케이스로 만들어진 '에디션' 등 3종류로 나왔다. 색상, 액정크기와 밴드 매치에 따라 총 54종류의 애플워치가 나왔다.

애플워치는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스케치 기능, 애플워치를 두드려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진동 전송 기능 등이 있다.

가격은 43만9000~2200만원까지 다양하다.

프리스비에서 애플워치 모델을 시연하고 있다.

삼성전자 '기어S'(왼쪽)와 LG전자 'LG 워치 어베인 LTE'

지난해 11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기어S는 3G 이동통신, 와이파이를 탑재해 스마트폰과 떨어져도 통화, 메시지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2.0인치 커브드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가격은 29만70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삼성전자는 2013년 9월 첫 번째 스마트워치인 갤럭시기어를 출시한 후 기어2, 기어2 네오, 기어핏, 기어라이브, 기어S까지 총 6가지 모델을 선보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LG전자는 올 상반기 LG 워치 어베인 LTE, LG 워치 어베인 등의 스마트워치 제품을 선보였다.

LG 워치 어베인 LTE는 유심카드를 내장해 개통 시 스마트폰과 별도로 번호를 받는다. 블루투스를 사용하면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배터리는 700mAh 용량으로 사용시간이 길며 가격은 65만원이다.

/임은정기자 eunj71@metroseoul.co.kr

SK C&C, 방글라데시 국가 백본망 구축 완료

"IT서비스 전략 파트너로 정보통신발전 지속 노력"

SK C&C(대표이사 박정호)는 6일 방글라데시의 이른바 '정보화 고속도로'로 불리는 국가 백본(Backbone)망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SK C&C는 2012년 말부터 2년 7개월에 걸쳐 방글라데시 중앙부처와 산하 행정기관 전체368개 사이트를 하나의 백본 네트워크로 연결해 전용 광케이블망·전송망·인터넷망 등을 포괄하는 국가 기간전산망을 구축해왔다.

32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지역별로 독립돼 구축된 네트워크를 하나의 전국 네트워크로 묶는 사업이다. 과거 지역별로 관리되던 공공정보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나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인프라 사업이다.

SK C&C는 TOSS를 구축해 전자정부 네트워크 상의 서버와 스토리지와 같은 IT인프라는 물론 운영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반에 걸친 실시간 성능·장애 모니터링과 구성·변경관리 등의 종합 IT자원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적정보나 세금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의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하나씩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IT수출의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다.

도지헌 SK C&C Global사업 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방글라데시 정부 당국과 강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며 "방글라데시 정부의 든든한 IT서비스 전략 파트너로서 방글라데시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hm0108@

최인현 SK C&C 전문위원(왼쪽)이 발주처인 BCC의 프로젝트 총괄자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다. /SK C&C 제공

SK플래닛, 메르스 극복 헌혈 행사 실시 SK플래닛(사장 서진우)은 메르스로 인한 헌혈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헌혈 릴레이 행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SK플래닛은 경기도 판교사옥 등에서 직원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인원 1인당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사회봉사 단체에 기부해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침체 극복까지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SK C&C 제공

SKT, 재난망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8월 21일까지 접수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미래지향적인 재난망 구축을 위해 재난망에 활용 가능한 IoT 및 빅데이터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국내 재·휴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방법은 SK텔레콤 T오픈랩 홈페이지 (http://topenlab.sktelecom.com) 내 '아이디어 공모'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총 상금 규모는 2000만원이다.

접수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21일까지.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유용한 팁은 SK텔레콤 T오픈랩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공모작 중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공모작은 실제 서비스를 위한 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향후 재난망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장기 SK텔레콤 국가안전망 TF 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미래지향적인 재난망 구축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은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하는 PS-LTE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문경기자

신세계, 잘된다 싶으면 이곳저곳 숟가락 '눈총'

올반·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골목상권 침해
T커머스 꼼수에 시내 면세점 입찰도 무리수

신세계그룹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지속하며 업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세계그룹의 무리한 사업 확장을 두고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골목상권 침해와 잘되는 사업에 끼어들기 경영을 자행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정용진(48) 부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 골목상권 킬러…올반·이마트 에브리데이·데블스도어

우선 신세계그룹은 한식뷔페 '올반', 수제 맥주집 '데블스도어',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끊임없이 침해하며 영세 상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기자가 여의도 알리안츠타워빌딩 지하에 위치한 올반 주변 식당을 찾아보니 식당 주인들은 신세계에 고객을 뺏겼다며 울상이었다. 아무리 맛으로 승부를 하려 해도 자본력에서 큰 차이가 나 가격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식당주인은 "지금의 여의도는 과거와 달리 점점 사람이 빠져 나가고 있다. 비싼 땅값에 간신히 임대료를 내면서 작은 식당 하나 하겠다는데 왜 대기업이 우리들 밥줄까지 뺏어 가느냐"고 한탄했다. 올반은 점심 1만4900원에 100여 종의 반찬을 제공한다.

신세계푸드(대표 김성환)는 지난해 10월 알리안츠타워빌딩에 올반 1호점을 냈으며 지난달 10호점까지 열었다. 올반을 등에 업은 신세계푸드는 올해 1분기 약 46억4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는 전년 동기 7억원의 손실을 뒤엎는 수치다.

신세계푸드가 지난해 말 선보인 수제맥주 전문점 '데블스도어'를 두고도 주변 반포 일대 영세 호프집 주인들의 응어리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의 횡포도 다르지 않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시장의 상인들은 같은 상품을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더 싸게 판다는 광고지가 돌면 장사를 접거나 힘들게 가져온 신선식품을 헐값에 팔아야 한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0월 '상생'을 외치며 전통시장 내부나 100m 이내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점포는 철수하겠다고 밝혔으나 흑석점은 흑석시장 한 가운데서 4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 상인은 "이제 슬슬 한계도 오고 화도 난다. 길에 이마트 전단지만 돌아 다녀도 가슴이 철렁한다"고 말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연합뉴스

◆ 편의점에 T커머스·면세점까지…무리한 업태 확장

신세계는 또 지난해 7월 편의점을 선보인데 이어 올들어 T커머스와 면세점 진출까지 노리며 무리하게 유통업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로열티·위약금·영업시간 강제' 등의 '3무(無) 정책'을 외치며 론칭한 위드미(대표 윤명규)는 지난해 말까지 점포를 1000개까지 늘리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이달 신세계가 밝힌 위드미의 점포수는 708개에 그쳤다. 올해 6월 기준 씨유(CU) 8715개, GS25 8683개, 세븐일레븐 7327개 등 3대 편의점의 10분의 1수준도 안 되는 수준이다. 또 대부분의 편의점들이 담배 값 인상에 따른 담배 특수로 전기 대비 약 3배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위드미의 경우 지난해 1분기 약 12억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올해 1분기 약 55억원 손실로 적자폭만 확대됐다. 무리한 점포 확대로 지난달 이마트로부터 80억원의 유상증자를 받기도 했다.

신세계그룹은 또 지난달 T커머스(TV상거래) 업체 '드림커머스'의 인수절차에 들어가 T커머스 진출을 노리고 있다. 업계는 T커머스 시장이 지난해 790억원대에서 올해 25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 나오자 거대 자본을 앞세워 꼼수 진입을 하려한다는 입장이다.

신세계그룹은 또한 교통이 복잡한 면세점 밀집 구역인 명동에 시내 신규 면세점 입지를 선정하며 명동 상권 경쟁을 과열시킨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면세점 입찰 기업 관계자는 "신세계의 경영은 항상 이런 식이다. 잘되는 사업이다 싶으면 골목이든 시내든 어디든 끼어들어 거대자본을 통해 고객 뺏기를 한다. 결국 오너의 경영 능력이 그 수준이라는 뜻"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홈플러스, 3병에 만원 '만원의 행복' 행사 홈플러스(대표 도성환)가 맥주와 미니 와인 30여 종에 한해 종류에 상관없이 3병을 만원에 판매하는 '만원의 행복' 행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9일까지 전국 홈플러스 140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프리미엄 맥주 5종을 포함해 카테일 계열의 맥주, 미니 와인 등 30여 종의 주류가 준비될 예정이다. /홈플러스 제공

놀부, 日 진출… 오사카에 '놀부 셰프스 초이스' 복합매장 오픈

지난 3일 복합매장이 오픈되는 유니버셜스튜디오 앞에서 김준영 놀부 대표(왼쪽 6번째)와 골든아치재팬 미즈오 타나베 대표(왼쪽 4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놀부 제공

종합외식전문기업 놀부(대표 김준영)가 일본에 진출한다.

놀부는 17일 일본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셜스튜디오재팬(USJ)에 놀부 셰프스 초이스(Nolboo Chef's Choice)를 오픈한다고 6일 밝혔다.

놀부 셰프스 초이스는 놀부 대표 브랜드 놀부보쌈·놀부부대찌개·놀부항아리갈비의 다양한 메뉴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복합매장이다.

이 매장은 직영점 형태로 향후 놀부의 일본 진출을 위한 메뉴와 시장 테스팅, 현지 고객 분석 등을 위한 안테나숍으로 운영된다.

놀부 관계자는 "USJ 놀부 매장을 글로벌 대표 매장으로 성장시킬 예정"이라며 "향후 오사카에 이어 동경, 나고야 등 일본의 핵심 도시 위주로 놀부 브랜드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면세점 영업익 12%, 지역개발 지원"

현대百, 지역상권과 상생

㈜현대DF(대표 이동호)는 서울 시내 면세점 운영권을 얻을 경우 면세점 영업이익의 20% 가운데 12% 정도를 지역 축제인 강남 페스티벌·C페스티벌 등 관광인프라 개발에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또 의료관광객에게 면세점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합작법인 주주사 모두투어와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도 출시한다. 이외에도 무형문화재 전수·코엑스 내 이벤트홀을 활용한 전통공연·전통문화 공연 세계화·강남 패션 페스티벌·예술 꿈나무 프로그램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상권과의 '상생'에도 나선다.

현대DF는 중소상인 발전기금을 만들어 지역상권의 시설 보수·개발을 돕고, 삼성동 주변 안내 시설물과 상권 홍보 가이드북도 배포키로 했다. 면세점 구매고객에게 지역상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연 4회)도 증정한다.

또한 MICE(국제회의·전시 관련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범현대 그룹사의 인센티브 성격 투어 고객을 적극 유치하고, 방한한 MICE 관광객을 대상으로 VIP 쇼핑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면세점 일대를 쇼핑,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한 관광 명소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광인프라 개발(12%)을 뺀 나머지 8%는 관광분야 학술지원과 장학사업(3%)·소외계층 지원(5%) 등에 사용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

계곡부터 가벼운 산행까지 자유로운
네파 멀티형 아쿠아슈즈

계곡 물놀이도!
가벼운 산행도!
네파 '멀티형 아쿠아슈즈'로!

네파 '아쿠아슈즈' 물놀이도, 산행도 OK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6일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네파 멀티형 아쿠아슈즈를 선보였다. /손진영기자 son@

여름 간식 DIY로 즐긴다

합리적 가격·만드는 재미 스무디·에이드 제품 각광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름 간식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제품이 각광받고 있다.

6일 G마켓에 따르면 스무디·에이드용 분말과 아이스티 분말 판매가 각각 전년 대비 123%, 95% 늘었다. 탄산수를 이용한 에이드 만들기가 인기를 끌면서 탄산수 판매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식품업계는 이처럼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DIY(Do It Yourself) 여름 음료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소비자 입맛 잡기에 나섰다. 합리적인 가격에다 만드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CJ제일제당의 투썸 밀크티 파우더는 스리랑카산 홍차추출분말을 사용해 향이 깊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몸에 설탕 흡수를 줄여주는 자일로스설탕을 사용하는 등 원료 차별화를 꾀했다. 우유와 얼음만 있으면 아이스 음료로 먹을 수 있다. 우유와 인스턴트 블랙커피 스틱형 1봉을 섞으면 밀크티 카페라떼가 된다. 또 타피오카 펄을 넣으면 버블티로도 즐길 수 있다.

브레드가든의 요거트 젤라또 믹스는 젤라또와 스무디 두가지를 만들 수 있다.

동봉된 요거트 분말 가루를 우유와 섞어 얼리거나 얼음과 같이 갈면 바로 완성된다. 요거트 젤라또 믹스는 지방 함량을 낮춘 저지방 제품으로 보존료와 인공색소를 넣지 않고 천연색소를 사용했다. 또 100% 천연 바닐라빈을 첨가해 고급스러운 풍미를 더했다. 플레인·망고·블루베리·딸기 등 4종으로 출시됐다.

탐앤탐스는 티요 요거트 파우더로 색다른 맛을 원하는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물론 스무디로도 만들 수 있는 이 파우더는 활성 유산균이 들어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복음자리의 블렌딩티는 카페에서 즐기는 블랜딩 음료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개발됐다. 차가운 물에서도 쉽게 희석되며 아사이베리·오미자 등 영양이 뛰어난 슈퍼푸드를 조합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잔에 평균 4000~5000원을 훌쩍 넘는 전문점 아이스 음료의 가격도 만만치 않다"며 "DIY 여름 음료용 제품은 개인 입맛에 맞게 제조는 물론 카페 음료보다 맛있게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생활용품업계, 창립기념 이벤트 봇물

생활용품 업계가 창립 기념일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면서 소비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기념 에디션 출시는 물론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전시회를 열며 브랜드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 프리미엄 주방용품 브랜드 휘슬러코리아는 9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본점 10층 문화홀에서 창립 170주년을 기념하는 솔라 패밀리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 기간 휘슬러를 모티브로 한 예술작품 전시는 물론 기획전과 쿠킹쇼를 실시한다. 최대 20% 할인하며 금액대 별로 사은품을 추가 증정한다. 또 고객 100명을 초대한 쿠킹쇼도 열린다.

창립 111주년을 맞은 써모스코리아는 16일까지 주요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는 '2015 써모스 썸 데이'를 전개한다. 써모스 전속모델이자 특별 게스트인 박형식의 사인회도 마련했다.

이 외에 행남자기는 창립 73주년을 기념해 핀란드 인기 캐릭터 무민 테이블웨어 제품군을 선보였다. 옥소 굿그립은 베스트셀러와 오리지널 버전 제품으로 구성한 25주년 에디션을 출시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영남 첫 진출 '신라스테이' 15일 울산점 오픈

프리미엄 비즈니스호텔 '신라스테이'가 영남 지역에 진출한다.

6일 신라스테이에 따르면 오는 15일 울산점(사진)을 열 예정이다. 경기도와 서울, 제주에 이은 영남지역 첫 진출이다.

신라스테이 울산은 지하 3층, 지상 22층의 335개 객실 규모에 ▲뷔페 레스토랑 '카페(Cafe)' ▲피트니스 센터 ▲미팅룸비즈니스 코너 등 부대시설을 갖췄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피에로 리스니가 맡았다. 객실엔 최고급 거위털 침구와 아베다 욕실용품, 다리미와 슈클리너, 유니버설 어댑터 등이 갖춰져 있다.

하이마트쇼핑몰, 에어컨 최대 25% 할인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가 온라인 쇼핑몰(www.e-himart.co.kr)에서 이달 31일까지 '에어컨 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기 에어컨 30여 개 모델을 선정해 최대 25%의 할인 혜택과 함께 롯데상품권 증정,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에어컨은 구매 다음 날부터 바로 배송과 설치를 받을 수 있으며(도서·산간 등 일부 지역은 제외) 배송비와 기본 설치비는 무료다.

행사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25%를 할인 한다. 즉석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 쿠폰에 지정 카드로 결제시 결제금액의 7~10%를 청구할인해 준다. 또 추가로 5%를 엘포인트(롯데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패션의류, 동대문 디자이너 제품만 팔 것"

그랜드동대문DF

'면세점 유치' 상생안 제시 지역 디자이너 전문관 설치 지역상인 무상임대·수익기부

서울 시내면세점 유치경쟁에 뛰어든 그랜드동대문DF(사장 조성민)가 동대문 지역 상인과 함께 하는 상생 면세점 방안을 발표했다.

그랜드동대문DF는 "면세점 사업을 하게 되면 패션의류 제품은 동대문의 신진 디자이너들이 만든 제품만 취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랜드동대문DF는 패션의류 제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대신 동대문 지역 상인에게 면세점내 240㎡(약 73평) 규모의 '동대문 디자이너 전문관'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 공간을 상인이 직접 운영하도록 했다.

동대문 디자이너 전문관은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신진 디자이너들이 만든 패션의류 상품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참여 디자이너는 60여명이다.

/그랜드동대문DF 제공

영업 초기, 매장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과 판매사원 인건비도 지원키로 했다. 회사는 이를 위해 동대문 산업공동체포럼 디자이너 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대문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영업이익의 6%를 '동대문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 또 면세점 내 신규 고용 인력도 최대 50%까지 지역 인재 추천제도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조성민 사장은 "동대문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소 상공인 중심으로 발전해온 곳으로 지역 상인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면세점 성공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상생안은 지역 상인들과 오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앞으로 동대문 상인회 등과 함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시내면세점,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해야"

제주소상공인연합회

면세점 수혜 지역환원 강조

(사)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재천)는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제주관광공사를 지지한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 시내면세점은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고,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해야 한다"며 "제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의 급증에도 면세점 수혜가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것은 미미하며 중국 자본이나 대기업 면세점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따른 과실이 대기업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민사회에 수혈돼 제주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공·사 기업의 균형성장을 통해 시내면세점 시장의 건강성을 한층 제고하는 것이야 말로 제주 면세시장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10일 제주 신규 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보라기자

안전보건, 보고 만지고 배운다

안보공단 '국제안전보건전시회'
美·日 등 14개국 200개사 참가
보호구 착용 등 체험행사 다채

지난해 열린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방문객들이 특수장갑을 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오는 9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제안전보건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무더운 여름철 옥외작업에 필요한 쿨링조끼, 칼이나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운 물건으로부터 손을 보호하는 특수장갑, 효과적인 마스크 착용법 등 최신 안전제품에 대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국내 안전보건분야 전시회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다. 미국·일본·독일 등 14개국에서 200여개 업체가 참가, 1만여점이 넘는 제품이 소개돼 산업현장의 최신 안전보건 제품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산업현장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안전제품을 전시했다.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체지방 측정 등의 체험기회와 일반 국민들이 안전을 주제로 제작한 UCC 상영, 안전사연과 사진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관람을 원할 경우 전시회 홈페이지(www.safetyshow.co.kr)에서 사전등록 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는 1만 4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일터와 우리사회에서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기회를 가졌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전시회를 통해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품이 소개되고, 산업현장에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 안전보건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새단장

브랜드 중심 디자인 채택
발매 예정 '구구' 동일 적용

발기부전치료제 처방 1위인 한미약품 팔팔(실데나필·사진)이 시알리스(타다나필) 특허만료 이후 발매 예정인 '구구'와의 시리즈 디자인 전략을 채택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팔팔의 외부 케이스와 PTP, 정제색상, 포장규격 등 디자인 전반을 9월 4일 발매 예정인 구구와 통일함으로써 디자인 전략을 통한 발기부전치료제 라인업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우선 팔팔이 발기부전치료제 처방 1위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브랜드 중심으로 외부 케이스와 PTP 포장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케이스 크기도 보다 콤팩트하게 줄였다.

2정 단위로 배치돼 있던 PTP 포장은 1정 단위로 단순화했으며, PTP 뒷면은 '팔팔'이란 브랜드가 돋보일 수 있도록 크기와 배치를 재조정했다.

또 정제색상도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밝은 파랑'으로 교체하고 브랜드를 숫자화한 '88'과 용량을 나타내는 '50', '100'으로 낱알식별 표기방식도 교체했다. 이와 함께 8T, 24T 등으로 다양했던 포장규격도 8T로 통일했다.

새롭게 변경된 팔팔은 제조번호 15003 부터 적용되며 재고량이 소진되는 7월 말 이후부터 용량별로 순차적으로 출하될 예정이다. 한미약품 측은 이와 같은 디자인 전략을 구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출시 3년인 팔팔은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을 주도하는 넘버 1 브랜드로 성장했다"며 "또 다른 발기부전치료제인 구구 발매에 맞춰 브랜드 중심의 통일성 있는 디자인 전략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팔팔은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로 정제와 물 없이 씹어 복용할 수 있는 츄정이 있다. 지난 2012년 5월 발매됐으며 국내 발기부전치료 시장에서 처방 1위(IMS NPA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최치선기자

롯데리아 글로벌원정대, 베트남서 '밥퍼' 봉사

무료 배식활동 '밥퍼' 동참
미션 수행으로 수익금 기부

롯데리아의 대학생 마케터 육성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롯데리아 글로벌원정대' 대원들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리아 제공

롯데리아(대표 노일식)는 대학생 마케터 육성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롯데리아 글로벌원정대' 10팀(30명)이 지난 29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원정활동을 떠났다고 6일 밝혔다.

1차 선발 200팀 중 베트남 원정에 선발된 10팀(30명)은 현지 롯데리아 서포터즈와 함께 미션을 수행하며 베트남에서 롯데리아 브랜드를 알리는데 힘썼다.

이들은 베트남 미션 활동 중 지난 1일 롯데리아 베트남 법인에서 정기적인 매월 1회씩 무료 식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인 '밥퍼'의 무료 배식 활동에 동참했다. 또 베트남 현지인들의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 플리마켓 미션 수행을 통해 얻은 수익금과 롯데리아 좋은세상만들기 모금액 일부를 지원해 총 2억 동(한화 약 10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 원정대 5기 베트남 원정은 베트남 현지인과의 소통과 나눔을 통해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더욱 더 친근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새마을금고 "집집마다 태극기 달아요"

광복 70주년 기념 캠페인
범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관에 태극기가 게첨됐다. /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 달기운동 범국민 캠페인'을 동참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는 오는 8월 15일까지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 현수막을 게첨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일부 금고에서는 내방 고객에게 태극기를 배포키로 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강강술래 "북캉스로 더위 날리세요"

'해외쇼핑 TOP LIST' 등
길벗 추천도서 증정 행사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북캉스족을 위해 도서출판 길벗의 추천도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북캉스란 '북(book)'과 '바캉스(vacance)'의 결합어로 독서를 즐기며 휴가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강강술래는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해외쇼핑 TOP LIST 710'과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를 선물한다.

해외쇼핑 TOP LIST 710은 우리나라에서 주말을 이용해 다녀올 수 있는 홍콩·오사카·방콕·괌 등 4개 도시의 대형 쇼핑몰부터 아웃렛·드러그스토어·슈퍼마켓까지 263개의 쇼핑 아지트를 주제별, 지역별로 소개한다.

또 그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710개의 쇼핑 아이템을 한 권에 모았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는 25년간 세계 각지에서 대화와 소통을 연구해온 저자(롭 켄들)가 일상적으로 오가던 대화가 어느 순간 오해를 가져와 파국으로 치닫고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 않는 21가지 대화의 기술을 알려준다. /김보라

상명대는 종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책 따라 문화기행'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상명대 '가족과 책따라 문화기행' 교육

종로구·종로문화재단과 공동

상명대학교는 종로구·종로문화재단과 함께 지난 4일부터 종로구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가족과 함께하는 책 따라 문화기행'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대상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초, 중, 고 학생들에게 가족과 체험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매주 하나의 책을 선정하고 그 배경과 소재에 따라 종로구 내의 궁궐, 거리, 시장 등을 걸어 다니며 체험하고 그 역사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총 8차시로 구성돼 매차시 3시간씩 운영한다. 첫날인 4일 동숭동 상명대 예술디자인센터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2달간 예술디자인센터와 종로구 내의 도서관에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현명기자 hmbok@

star bag

첫 스크린 신고식

배우 **이지아**가 영화 '무수단'으로 첫 스크린 신고식을 치른다. '무수단'은 비무장 지대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고 이후 그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남북한 최정예 군인들이 벌이는 24시간의 사투를 담은 작품이다. 이지아는 극중 생화학 주특기 장교 신유화 중위 역을 맡았다.

7월 컴백 선언

걸그룹 **헬로비너스가** 오는 7월 컴백을 선언했다. 소속사 측은 6일 "헬로비너스가 7월 컴백을 확정짓고 걸그룹 대전에 합류한다"며 "현재 재킷 촬영을 마쳤으며 마무리 작업 중에 있다. 한층 화려하고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컴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1년 만의 신곡 발표

가수 **송하예**가 6일 정오 각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통해 신곡 '얼음'을 수록한 두 번째 싱글 앨범 '아이스 썸머(ICE SUMMER)'를 발매하고 1년여 만에 컴백했다. 신곡 '얼음'은 무더운 여름 차가운 얼음 같은 남자에게 반해버린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다.

생애 첫 맹인 검객 변신

배우 **전도연**이 8월 개봉하는 영화 '협녀, 칼의 기억'에서 맹인 검객으로 변신한다. 전도연은 극중에서 뜻을 같이 했던 동료 유백의 배신으로 평생을 증오와 복수심에 고뇌하는 월소 역을 맡았다. 생애 최초 맹인 여검색 연기를 위해 와이어 액션, 검술은 물론 고전무용 연습까지 병행했다.

바보같아도 항상 진실된 연기해야죠

영화 '마돈나' **김영민**

어떤 배우는 인기와 명성을 쫓는다. 반면 연기라는 한 우물만을 진득하게 파는 배우도 있다. 김영민(43)이 바로 그런 배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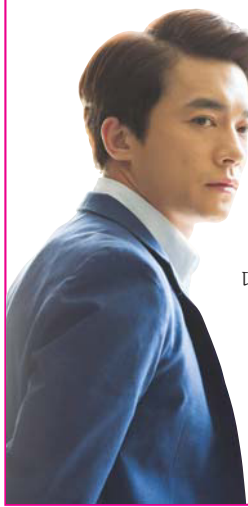
김영민은 서울예대 연극과 출신으로 연극 무대에서 처음 연기의 재미를 느꼈다. 2001년에는 김기덕 감독의 '수취인불명'에 캐스팅돼 영화로 무대를 넓혔다. '아주 특별한 손님' '경축! 우리 사랑'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등에 출연하며 스크린에서 시야를 넓혀왔다.

지난해에는 김기덕 감독과 '일대일'로 11년 만에 다시 만났다. 1인 8역이라는 전대미문의 연기로 그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 활약을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순환선' '명왕성' 등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신수원 감독이었다. 그렇게 김영민은 영화 '마돈나'와 만나게 됐다.

'마돈나'는 VIP들이 입원하는 병원을 무대로 간호조무사 해림(서영희)이 의문의 여인 미나(권소현)의 과거를 추적하는 액자식 구성의 영화다. 이를 통해 남성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는 여성의 삶을 낱낱이 파헤친다. 김영민은 병원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재벌 2세로 해림에게 미나의 과거를 알아오라고 명령하는 남자 상우를 연기했다.

신수원 감독의 전작들처럼 영화는 여러 가지 상징과 은유를 통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풀어낸다. 영화의 무대가 되는 병원은 한국사회의 축소판이다. 돈과 권력을 모두 쥔 상우의 의도대로 병원이 움직이는 것이 그렇다. 해림과 미나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악역과도 같은 캐릭터다.

그러나 김영민은 상우를 단순한 악역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았다. 상우 역시 복잡한 마음을 지닌 인물로 관객에게다가 가기를 바랐다.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상우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대본을 읽을 때의 가슴 아팠던 마음을 잊어야 했어요. 이유가 있는 악역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영화는 여성과 모성을 이야기하지만 자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본 자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가진 자의 고통도 보여주죠. 체제 자체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VIP 병동 운영하는 재벌 2세 역할 평면적 악역 아닌 복잡한 내면 표현

칸영화제 참석 배우로써 많은 자극 연기 즐길 수 있는 경지에 올랐으면

상우를 연기하는 데 영감이 된 것은 뭉크의 그림 '마돈나'였다. "시나리오 표지에 그림이 있었어요. '절규'처럼 쾌락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한 여자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죠. 그 그림을 보면 마치 뼈다귀 같은 남자가 있어요. 딱 상우 같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일차적인 폭력은 배제되고 있지만 대신 밥그릇 가지고 위협하는 것처럼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은근히 억압을 하잖아요. 해림과 미나에게 상우가 그런 존재일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김영민에게 '마돈나'는 잊지 못할 작품이다. 영화배우라면 누구나 꿈꾸는 칸영화제에 가게 해준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김영민은 허우샤오시엔, 지아장커 감독 등 평소에도 좋아했던 영화인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자극도 많이 받았다. "바보 같더라도 작품마다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연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새겼다.

영화 경력으로만 놓고 보면 어느 새 데뷔 15년차다. 그동안 작품성 있는 영화들로 배우로서의 재능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김영민은 "연기를 즐길 수 있는 경지가 오면 좋겠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배우는 연기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꾸준히 연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능한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연기를 즐길 수 있는 경지가 오길 바랍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문화계, 메르스로 지친 시민들 위로

다양한 무료공연·티켓 1+1 행사 등 펼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시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문화계가 무료 공연이나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문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하고있는 밸류컬처앤미디어는 문화사업 증진과 관객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처음으로 티켓 1매 구매 시 1매를 추가로 증정하는

'티켓 1+1 밸류데이' 이벤트를 벌인다. 첫 행사 작품으로 동성애의 파격적인 소재로 청소년의 정체성을 고민한 '베어 더 뮤지컬'을 선택했다. 오는 7월 21~22일 공연 회차에 한해 티켓 1매 구매하면 2매가 제공된다.

세종문화회관·서울문화재단·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서울시 산하 3개 재단 소속 5개 예술단은 지난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깜짝 이벤트 공연을 펼쳤다. 서울시향의 현악체임버팀은 서울역 3층 오픈콘서트홀에서 무료 '우리동네 음악회'를 열었다. 세종문화회관 소속 서울시합창단, 유스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단은 각각 서울광장, 청계광장, 명동 중심가에서 시민들을 찾아 위로했다. 서울문화재단의 비보이 그룹은 양천구 가로공원에서 힐링콘서트를 펼쳤다.

대구 EXCO에서 전시되고 있는 '반 고흐 미디어아트' 전은 대구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연계해 홈경기를 관람하면 추첨을 통해 전시회 티켓을 증정한다.

밸류데이 관계자는 "밸류컬처앤미디어가 티켓금액의 일부를 보존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된 문화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

THE 맛있는 One샵

푸드트럭을 타고 펼치는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요리배틀!

첫방송 | 7월 16일 | 목 | 밤 11시

t.cast |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할리우드 연기파들의 감독 변신작 주목

윌리엄 H.머시 '러덜리스'·헬렌 헌트 '라이드'
음악·서핑 통해 가족의 화해와 성장 담아내

감독으로 변신한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들의 작품들이 7월 대작들 사이에서 개봉한다. '파고' '매그놀리아'로 잘 알려진 윌리엄 H. 머시의 감독 데뷔작 '러덜리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로 유명한 헬렌 헌트의 두 번째 장편 연출작 '라이드: 나에게로의 여행'(이하 '라이드')이다. 음악과 서핑이라는 색다른 소재를 통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룬 작품들이다.

오는 9일 개봉하는 '러덜리스'는 아들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의 이야기다. 잘 나가는 광고 기획자였으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아들을 잃고 요트에서 살고 있는 남자 샘(빌리 크루덥)이 아들이 남겨 놓은 음악을 통해 외면했던 질문과 마주하는 과정을 그렸다.

영화 전반부는 낙오자처럼 살아가던 샘이 청년 쿠엔틴(안톤 옐친)을 만나 밴드를 꾸리는 과정을 담고 있다. 감미로운 포크 음악부터 에너지 넘치는 록 음악까지 다채로운 곡들이 스크린 가득 펼쳐진다.

그러나 영화는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예상 못한 반전을 제시한다. 스포일러라 밝힐 수 없지만 '러덜리스'가 던지는 질문은 꽤 논쟁적이다. 관객 입장에서는 그 질문에 각기 다른 대답을 내리게 될 것이다. 다만 영화 말미에서 샘이 부르는 노래는 이러한 논쟁마저도 무색하게 만드는 부성애를 강하게 느끼게 한다.

오는 16일 개봉하는 '라이드'는 관계의 변화 속에서 성장해가는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다. 오직 일과 아들만 생각하며 살아온 뉴요커 재키(헬렌 헌트)와 그런 엄마의 굴레에서 벗어나고픈 작가 지망생 아들 앤젤로(브랜튼 스웨이츠)가 뉴욕을 떠나 로스앤젤레스에서 겪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햇살을 머금은 듯 스크린을 채우고 있는 여유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재키는 "서핑도 못 탈 것"이라는 앤젤로의 반항에 반발하며 서핑을 배우기 시작한다. 소독약 냄새 가득한 수영장만을 경험했던 재키에게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러나 거친 파도를 서서히 헤쳐 가면서 재키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된다.

영화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다소 빤한 주제지만 영화를 보는 동안만큼은 작은 위로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상처를 직시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라는 점도 작은 감동을 남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러덜리스

라이드

TV 하이라이트

심형탁의 힘겨웠던 과거 고백

◆ SBS '썸남썸녀'

오후 11시 15분

강균성과 서인영이 심형탁의 집을 방문해 그의 부모님을 만나 심형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심형탁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하던 중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과거사를 털어놨다. 어머니는 심형탁이 빚을 갚기 위해 일을 꾸준하게 해왔으며 결국 아버지 가게도 차려드렸다며 고마움을 전한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tvN '집밥 백선생'

오후 9시 40분

생선 통조림을 주제로 다양한 집밥 레시피를 선보인다. 생선 통조림으로는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없다는 오해와 편견을 백선생의 고급진 레시피로 바로 잡는다.

◆ MBN '엄지의 제왕'

오후 11시

회춘의 열쇠 '단백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내 몸속 모든 세포의 원료이자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단백질에 생로병사의 모든 비밀이 숨어있다는 비밀을 공개한다.

◆ tvN '현장토크쇼-택시'

오후 8시 40분

대한민국 톱스타들이 가장 찍히고 싶어하는 포토그래퍼 조선희가 택시에 탑승한다. '써니', '관상', '건축학개론' 등 대박 포스터의 비하인드를 공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72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신체가 튼튼!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이웃집 찰스	50 오늘부터 사랑해 (66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17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21회)	00 지파이터스 30 EBS 뉴스 50 극한 직업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42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1 대 100	55 딱 너 같은 딸 (37회)	00 SBS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인터뷰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시사기획 창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너를 기억해 (6회)	00 화정 (26회)	00 상류사회 (10회)	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쉰들러 리스트>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썸남썸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5 독립영화관 <링>	30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기획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냉장고를 부탁해 (34회) (재)	10 집밥 백선생 (7회) (재)	30 MAPS (2회)			◆ 프로야구 (18:30) 롯데 vs LG (SPOTV+) KT vs NC (MBC SPORTS+) KIA vs 넥센 (SKY SPORTS) 두산 vs 한화 (SBS SPORTS) SK vs 삼성 (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40 오 마이 갓 글로벌 특집 (3회)	40 오늘 뭐 먹지? (77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4회)	40 U-571	
20시	50 JTBC 뉴스룸	40 현장토크쇼 TAXI (386회)	30 유미의 방 (2회)	00 살인마로 돌변한 동물 (2회)		
21시	4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34회)	40 집밥 백선생 (8회)	00 올리브쇼 2015 (4회)	00 세계로 가는 아시아 헌터 (14회)		
22시			00 오늘 뭐 먹지? (24회) 30 유미의 방 (2회)	00 닐 타이슨의 스타 토크 (9회)	00 디스 이즈 디 엔드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51회)	00 신분을 숨겨라 (8회)	00 올리브쇼 2015 (24회)	00 <히틀러의 메가프로젝트>지하 벙커		
24시	20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34회)	20 현장토크쇼 TAXI (386회) (재)	00 MAPS (2회)	00 동물을 해부하라!	00 몬스터 대학교	

대니 리, 짜릿한 연장 우승

PGA 첫 우승컵·상금 13억·디오픈 티켓 '세 토끼 사냥'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5)가 짜릿한 연장전 승리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했다.

대니 리는 6일(한국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올드화이트 TPC(파70·7287야드)에서 열린 그린브라이어 클래식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합계 13언더파 267타를 적어내 케빈 키스너, 로버트 스트렙(이상 미국), 데이비드 헌(캐나다) 등 3명과 함께 연장전에 들어갔다.

비가 오는 가운데 18번홀(파3)에서 치러진 1차 연장전에서 대니 리는 티샷을 홀 4m에 떨어뜨린 뒤 버디를 잡았다. 키스너와 스트렙은 파에 그쳐 1차 연장에서 탈락했지만, 헌은 데니 리와 비슷한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해 2명이 펼치는 2차 연장전에 들어갔다.

17번홀(파5)에서 이어진 2차 연장에서 대니 리는 침착하게 파를 잡았다. 하지만 헌은 두 번째 샷을 벙커턱에 떨어뜨리며 그린을 공략하지 못해 보기에 그쳤다.

한국에서 태어난 대니 리는 8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 골프를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각종 아마추어와 프로 대회에서 우승, 유망주로 인정받았다. 한국 이름은 이진명이다.

2008년 18세1개월의 나이로 US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2009년 2월 유럽프로골프투어 조니워커 클래식 우승으로 실력을 입증했다. 2009년 마스터스 출전 뒤 프로로 전향했다.

하지만 프로에서는 5년 넘게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하며 마음고생을 했던 대니 리는 이번 우승으로 120만6000달러(약 13억5000만원)의 상금과 오는 16일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개막하는 브리티시 오픈 출전권을 확보했다.

한편 공동 선두로 4라운드에 나섰던 박성준(29)은 무려 5타를 잃고 공동 37위(6언더파)로 추락했다. 노승열(24)도 2타를 잃어 공동 37위에 머물렀다. 타이거 우즈는 공동 32위(7언더파)에 그쳤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6일 끝난 PGA 투어 그린브라이어스 클래식에서 우승한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가 우승컵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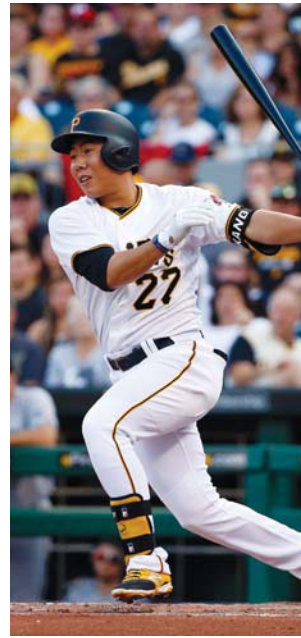
강정호, 3경기 만에 안타

추신수, 대타 출전 뜬공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3경기 만에 안타를 쳤다.

강정호는 6일(한국시간)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58(198타수 51안타)로 유지했다.

2회말 첫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강정호는 0-3으로 뒤진 5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좌전 안타를 때려 추격의 발판을 만들었다. 강정호에 이어 페드로 알바레스가 2점 홈런을 날렸고, 닐 워커·앤드루 매커천 등의 연속 적시타가 터지며 5회말에만 5점을 뽑았다.

강정호는 6회말 중견수 뜬공, 8회말 2루수 직선타로 물러났다. 피츠버그는 5-3 역전승을 거두며 클리블랜드와의 3연전에서 2승을 챙겼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는 LA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서 8회 대타로 등장해 외야수 뜬공에 그쳤다. 텍사스는 에인절스에 6-12로 완패했다.

/하희철기자 bbuheng@

태권도·양궁·기계 체조 스타트… 오늘은 골든데이

광주U대회

열기를 더하고 있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국이 7일부터 전통적인 강세 종목들로 본격적인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첫 번째 종목은 태권도다. 이날 남녀 품새 개인전이 광주 조선대 체육관에서 열리고 8일에는 남녀 품새 단체전과 혼성 경기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겨루기는 9일부터 12일까지 개인전이 먼저 열리고 단체전은 13일에 펼쳐진다. 남녀 품새 개인전에는 배종범(19·조선대)과 양한솔(21·한국체대)이 출전해 금메달에 도전한다.

태권도는 남녀 겨루기 18개, 품새 5개로 총 23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한국은 최소 5개에서 많으면 7~8개의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양궁 컴파운드에서도 7일 금메달 5개가 나온다. 남자 개인전 결승에는 김종호(21·중원대)와 김태윤(22·현대제철)이 맞대결을 펼쳐 이미 금, 은메달을 확보했다. 남자단체 결승에서는 멕시코와 금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여자 개인전 결승에는 송윤수(20·현대모비스)가 올라가 있어 무더기 금메달이 예상된다.

남자 양궁 대표팀 김종호. /연합뉴스

7일 가장 많은 금메달이 나오는 종목은 기계 체조다. 마루, 안마, 도마, 링 등 남녀 개인 종목별 결승이 열리면서 10개의 금메달이 쏟아진다. 한국은 '도마의 신' 양학선(23·수원시청)이 부상으로 경기 출전을 포기해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민수(한양대), 이준호(한체대), 이혁중(전북도청), 조영광(경희대) 등이 지난 5일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는 등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희철기자

미국 16분 만에 4골 '깜짝쇼'

일본 5-2 꺾고 FIFA 여자월드컵 우승

FIFA 여자월드컵

미국이 일본을 꺾고 우승컵을 차지하며 지난 대회 결승전 패배를 설욕했다.

6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15 FIFA(국제축구연맹) 여자월드컵 결승전에서 미국은 베테랑 공격수 칼리 로이드(32)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지난 대회 디펜딩 챔피언 일본에 5-2 대승을 거두며 우승했다.

로이드는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린 지 3분만에 선제골을 넣은 뒤 전반 5분에 추가골을 넣었고 3-0으로 앞선 전반 16분에는 추가골을 넣으면서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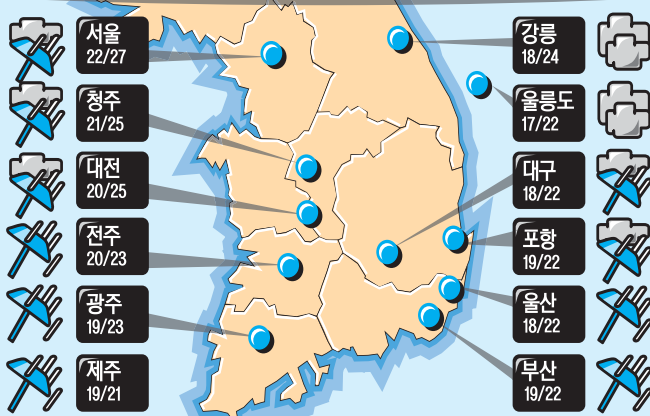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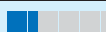
정교한 기술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여자월드컵 2회 연속 우승을 노리던 일본은 전반 27분 오기미가 만회골을, 후반 7분에는 존스톤의 자책골로 추격을 노렸지만 16분만에 3골을 몰아친 로이드의 골 폭격 앞에 그대로 무너졌다.

칼리 로이드가 6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15 FIFA 여자월드컵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골을 기록하고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번 대회에서 6골을 기록한 로이드는 독일의 실리아 사시지와 함께 골든부츠(득점왕)를 차지하는 기쁨도 누렸다.

/하희철기자

오늘의 광주 하계U대회 7일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여자 자유형 400m·평영 200m·접영 100m·계영 4×200m 예선(8시30분)
남자 자유형 100m, 여자 평영 200m 준결승(19시)
남자 평영 200m·배영 50m·접영 200m, 여자 자유형 400m·개인혼영 200m·배영 100m·계영 4×200m 결승(19시·이상 남부대 국제수영장)
▲다이빙= 남자 10m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 결승·여자 3m 스프링보드 예선 및 준결승(11시·남부대 국제수영장)
▲양궁= 컴파운드 남녀 개인·단체·혼성 결승 및 3~4위전(10시·광주국제양궁장)
▲배드민턴= 남녀 단체전 예선 및 준준결승(9시·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야구= 한국-프랑스(17시·무등야구장)
▲농구= 여자 한국-헝가리(20시·동강대체육관)
남자 한국-모잠비크(20시·영광스포티움)
▲펜싱= 에페 여자 단체전 예선 및 결승(9시)
사브르 남자 단체전 예선 및 결승(12시·이상 김대중컨벤션센터)
▲축구= 남자 한국-캐나다(16시30분·영광스포티움축구장)
▲체조= 남녀 개인 종목별 결승(11시·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
▲핸드볼= 여자 한국-세르비아(14시·고창군립체육관)
남자 한국-리투아니아(18시·구례실내체육관)
▲유도= 여자 48㎏급·무제한급, 남자 60㎏급·무제한급 예선 및 결승(9시·염주빛고을체육관)
▲조정= 남자 싱글스컬·더블스컬·경량급 싱글스컬·경량급 더블스컬·에이트 결승
여자 싱글스컬·더블스컬·경량급 싱글스컬 결승(10시·이상 충주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사격= 남자 25m 속사권총, 여자 50m 소총복사(9시·이상 나주전남종합사격장)
▲탁구= 남녀 단체전 예선 및 16강전(10시·장성홍길동체육관)
▲태권도= 남녀 개인 품새(9시·조선대체육관)
▲테니스= 남녀 단·복식 2,3회전, 혼합복식 1,2회전(9시·진월국제코트)
▲배구= 남자 한국-미국(18시·염주종합체육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5			
6	5						3	2
		4				5		
2			4		6			9
	1		7		3		5	
3			8		9			4
		7				2		
1	4						9	5
			2		8			

1				5		3		
	6			7		8		
							9	
			9				1	
9	2				1	7		
				8		9		4
4	9			1	7			3
		5	6					8
					4	5	7	

스도쿠 정답

7	2	8	1	3	5	9	4	6
6	5	1	9	8	4	7	3	2
9	3	4	6	7	2	5	8	1
2	8	5	4	1	6	3	7	9
4	1	9	7	2	3	6	5	8
3	7	6	8	5	9	1	2	4
8	9	7	5	4	1	2	6	3
1	4	2	3	6	7	8	9	5
5	6	3	2	9	8	4	1	7

1	4	9	2	5	8	3	6	7
3	6	2	4	7	9	8	5	1
8	5	7	1	3	6	4	9	2
7	8	3	9	4	5	2	1	6
9	2	4	3	6	1	7	8	5
5	1	6	7	8	2	9	3	4
4	9	8	5	1	7	6	2	3
2	7	5	6	9	3	1	4	8
6	3	1	8	2	4	5	7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법관과 판사, 같은 의미인가

생활 법률

일상생활에서 법관과 판사 두 용어를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무의식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판사들조차 두 용어를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이들 용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두 용어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관과 판사는 거의 비슷한 의미지만 포괄하는 범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된다.

법관은 대법원과 고등·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법관엔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 법관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판사는 법관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 법관을 일컫는다.

양승태 대법원장 /연합뉴스

즉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할 때는 법관, 포함하지 않을 때는 판사로 보면 된다.

법원조직법 5조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이지만 판사는 아니고 고등·지방법원의 법원장은 직책상 법원장이지만 판사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두 용어 중 어디에 포함될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 등도 임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라도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되려면 사직해야 하기 때문에 사직하는 순간 더 이상 판사가 아니다. /유선준기자 rsunjun@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직장동료로 지낸 여성과 결혼해도 될까요? 두분 모두 이해의 폭 넓어… 향기로운 궁합

미주알 남자 82년 11월 9일 양력 12시40분
여자 82년 9월 30일 양력 20시경

Q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결혼을 해도 괜찮은 궁합인지 괜찮다면 언제쯤 할지 말씀해주세요. 병원에 환자가 찾아가서 진료를 받게 될 때 자세히 증상을 이야기해야 의사가 정확한 처방을 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저와 상대 여성에 대해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담자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라고 봅니다. 저와 상대 여성은 같은 무역회사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깊은 사귐이나 관심이 없었으며 무덤덤하게 지내왔었는데 나이가 들다보니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상대 여성도 결혼을 하면 직장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A 궁합을 보는 방법도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두 분의 궁합을 논하기 전에 사주궁합의 오해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복의 정도가 다르기에 남편 또는 부인 궁에 횡액이 끼였다한다면 사실 상대방에게는 당연 걱정이 될 것입니다. 각각은 좋아도 함께 모이면 시끄럽고 불협화음이 나게 됩니다. 사주에 부부궁이 좋지 않거나 피곤한 경우에는 인내심이 적극 요구됩니다. 때로는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배필이 있고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더 희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결혼을 통해 내가 더 많은 덕을 보고 얻는 것이 많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다보니 결혼 생활 중에 뭔가 피해보는 것 같거나 희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결혼 생활은 우울해 집니다. 궁합이 좋고 안 좋고의 가름도 이런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배우자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도 궁합이 좋은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갑니다. 그렇지 못한 쌍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결국은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흔히 궁합이 좋으면 부부간의 성생활이 만족스럽다고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궁합의 의미를 아주 협소하게 보는 것입니다. 궁합이 좋은 사람들은 생활습관이나 성격이 달라도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솟아나며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모진 세월을 지내 왔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궁합이 좋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이해의 폭이 넓은 향기로운 궁합인데 지면상 다시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7일 (음 5월 22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60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72년생** 금전 거래는 금물입니다. **84년생**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이 듭니다.

49년생 집안에 혼사가 있겠습니다. **61년생**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 힘을 빼게 됩니다. **73년생** 쓸데없는 접대는 낭비입니다. **85년생**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0년생 힘들어도 꼭 이루어지니 기뻐하세요. **62년생**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됩니다. **74년생** 평소 하던 방식을 변경하지 마세요. **86년생** 지금은 어려우나 곧 호전됩니다.

51년생 주변 상황에 낙심하지 마세요. **63년생** 길 밖으로 나가심이 좋겠습니다. **75년생** 부지런히 움직일 때 입니다. **87년생**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52년생 이윤이 많은 거래 건이 성사됩니다. **64년생** 다소 이루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76년생** 가고자 하는 곳에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8년생** 상대의 마음 돌릴 길이 없습니다.

53년생 큰 꿈은 포기함이 좋을 듯 합니다. **65년생** 만인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77년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하세요. **89년생** 주위의 얕은 말을 듣고 꺽이지 마세요.

54년생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세요. **66년생** 쇠를 끊을 정도의 힘이 생겨납니다. **78년생**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90년생** 하늘이 큰복을 주니 만사형통입니다.

55년생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67년생** 준비된 자만이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79년생**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91년생** 물가에 가려 거든 조금만 미루세요.

56년생 동쪽이 길방향입니다. **68년생** 혼자이라 외롭고 처량합니다. **80년생**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92년생** 건강에 무리 있겠으니 휴식이 절실합니다.

57년생 관재 구설을 조심 해야겠습니다. **69년생**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세상이 변해 갑니다. **81년생** 가까운 곳의 나들이는 길합니다. **93년생** 애정운이 길하니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58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게 됩니다. **70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세요. **82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뀔 시기입니다. **94년생** 방황은 끝, 새로운 시작입니다.

59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세요. **71년생** 단체 생활을 하면 매우 길합니다. **83년생** 큰 뜻을 이루니 세상의 모범이 됩니다. **95년생**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비정상의 일상화

송병형의 딴생각

국회가 세월호법에 사망선고를 내리기로 한 6일 아침 충격적인 기사가 어느 조간신문 1면을 장식했다. 세월호 참사의 죄인들이 민간인에서 준공무원으로 영전해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중 선박안전공단에 특별채용된 수는 최소 30명이다. 기사에서 지적한대로 운항관리직 자격을 갖춘 이가 전국에 1만2000여명에 달하는데도 이들을 채용한 것은 누가 봐도 기존의 부패 사슬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 운항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은 선주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었다. 선수에게 심판을 맡겼으니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기어코 세월호 참사가 터졌고 정부가 그때서야 '국가 대개조'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선수에게서 심판권을 박탈해 선박안전공단에 맡겼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선수가 옷만 바꿔 입었던 셈이다. 엊그제까지 해운조합팀 유니폼을 입었던 데다 부패의 사슬이 여전하니 새 유니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제1척결대상인 비정상의 표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 '비정상의 일상화'라고 꼬집는 이들까지 속출하고 있다.

하긴 비정상의 일상화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도처에 상식을 뒤집는 일들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는 도박시설인 화상경마장을 레저시설이라고 우긴다. 그러고서는 항의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느냐"며 도박을 해보라고 권한다. 현행법 거리제한보다 단지 35m 더 학교로부터 떨어진 곳에 터를 잡았다는 게 마사회의 보호막이다. 이 보호막을 거두기 위해 법을 고치려고 해도 정부 당국자를 비롯한 소위 전문가들이 막아선다.

이 같은 비정상이 가능한 원인은 결국 해운조합의 경우와 같다. 담당부처의 장관과 담당 국회 상임위원장이 마사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가니 마사회의 힘이 막강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마사회장은 삼성그룹 출신에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그룹 멤버다. 얼마 전 유력한 국무총리 후보였을 정도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뿐인가.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는 광고·협찬을 기준으로 스스로 사이비언론과 정도언론을 판정하는 심판관이 되겠다고 나섰다. 언론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지, 사회부조리를 얼마나 파헤치고 있는지는 이들에게 사이비언론을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재벌 대기업을 비판하는지, 언론권력을 쥐고 있는지가 기준이다.

선수가 심판을 자처하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힘을 가진 기득권 세력 중 이를 문제 삼는 곳은 찾기 힘들다. 되레 동조하는 곳이 태반이다. 이 정도면 비정상의 일상화라고 할 만하지 않은가. /정치부장

담뱃값 인상 6개월… 정부 기대 효과 어디로?

기자 수첩
김 보 배
<경제부 기자>

국내 대표 편의점인 CU와 GS25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이 담배 매출 증가에 따른 호황을 누리고 있다. 애초 흡연율을 줄이겠다던 정부의 취지가 무색하게 세수 증진 효과만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 초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서 담배 판매량을 34% 줄여 흡연율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족한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선 국민건강증진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담배 수요 회복이 편의점 매출로 증명되는 등 '건강증진'을 앞세웠던 정부의 당초 취지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1억7000만갑이던 담배 반출량은 지난 4월 2억9100만갑, 5월 2억6900만갑을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봐도 편의점의 지난 1월과 2월 담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3%, 7.7% 늘어난 데 반해 3월부터는 46.4%(3월)→53.5%(4월)→58.9%(5월)로 급증했다.

이에 지난 3일 BGF리테일과 GS리테일 주가는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들 업체 주가는 올 들어서만 각각 141.83%, 108.57% 올랐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도 BGF리테일은 지난해 말 기준 1조8849억원에서 현재 4조5584억으로, GS리테일은 1조9750억원에서 4조119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증권사들은 "편의점의 2분기 실적 성장은 담배가격 인상 효과에 기인한다"며 "담배판매 증가율은 확대되고 있고 흡연율 회복 추세는 내년 2월까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최소 1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전망이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담뱃세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00억원 늘었다.

늘어난 세수에 비해 금연 지원을 위한 정책은 미흡하다보니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SNS에는 "금연에 실패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서민 호주머니 털어 세금 거둬간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등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댐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세금 중 상당수를 금연정책에 사용하겠다고 장담했다. 담배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며 담뱃세는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히게 됐다. '세수 확보'에 만족한 채 이대로 흡연자들을 등 돌릴 셈인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진정 할 수 있는 일이 무언지 고심해볼 때다.

社說

재벌기업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재벌기업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일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가 폭발해 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 6명이 모두 숨졌다. 두께 약 20㎝의 콘크리트로 된 저장조 상부가 무너져 내릴 정도로 폭발 충격이 컸던 데다, 작업자들이 폐수로 가득 찬 저장조에 빠지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컸다.

올 1월에는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4월에는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공장 옥상의 배기덕트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3명도 질소가스에 질식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4월에는 세월호 침몰참변이 일어나 국민 모두가 슬픔에 잠긴 가운데서도 현대중공업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바다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한화케미칼 측의 설명으로는 작업장인 저장조 외부의 인화성 가스 농도는 측정했지만, 내부의 가스 농도는 측정하지 않았다. 인화성 가스가 가득한 저장조 위에서 화기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선행조치를 망각한 것이다. 결국 이번에도 안전불감증이 근본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재벌기업에서 잇따라 사고가 일어나면 '반면교사'로 삼을 법도 하지만, 사고는 그침이 없다.

재벌기업 작업장에서 연이어 일어난 산업재해 사고는 대부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희생됐다. 때문에 과거 재벌기업들은 사고가 날 때마다 그 책임을 협력업체에 떠넘기곤 했다.

그런데 이런 사고들을 협력업체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작업의 성격상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안전대책만큼은 원청기업이 책임지고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협력업체에 책임을 미루기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왕국'이라는 오명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다. 재벌기업들은 이제 공장운영의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하지 않을까.

푸조 208

푸조 208·토요타 프리우스·시트로엥 DS3 등

국내 시판 차량 '연비왕' 수입차가 휩쓸어

소비자 119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 연비 효율이 좋은 상위 30개 모델 중 25개를 수입차가 휩쓸었다.

연비 효율 상위 30위권에 국산차는 5종이 들어갔다.

6일 에너지관리공단 수송에너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내 시판 연비왕 차량은 '푸조 208 1.4 e-HDi 5D'가 차지했다.

배기량 1.4ℓ의 소형 경유차인 푸조 208의 복합연비는 21.1㎞/ℓ다.

연비가 좋기로 유명한 토요타 프리우스(21.0㎞/ℓ)는 2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시트로엥 DS3 1.4 e-HDi(20.2㎞/ℓ), BMW 320d(19.7㎞/ℓ), 미니 쿠퍼 D(19.4㎞/ℓ)가 뒤를 달렸다.

상위 10위권 내 국산차로는 현대자동차의 엑센트 1.6 디젤(5도어, 4도어)과 기아차의 프라이드 1.4 디젤(5도어 2015년형)이 19.0㎞/ℓ의 연비로 공동 8위에 올랐다.

현대차의 아반떼 1.6 디젤(18.5㎞/ℓ, 공동 22위)과 엑센트 1.6 디젤 DCT(18.3㎞/ℓ, 공동 29위)는 상위 30위권에 진입했다. /이정필기자

인 사

■ 농림축산식품부

◇전보 ◇과장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강귀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홍만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권오전

■국민안전처

◇승진 <소방감> △소방정책국장 윤순중 △119구조구급국장 신열우 △중앙119구조본부장 이형철 ◇전보 <소방감> △경상북도소방본부장 우재봉 ◇승진 소방준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마재윤 △울산광역시소방본부장 조인재 △경기도소방학교장 허석곤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장 변수남 △국민안전처 권대윤 ◇전보 <소방준감> △경상남도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장 김영중 △119구조구급국 소방장비항공과장 이창화

■ 산업연구원

◇승진 <선임연구위원> △김화섭 △김영수 △최윤희 <연구위원> △고대영 △성열용 △이준

■ 고려대

△자연계 학사지원본부 본부장 양동오 △인문사회계 학사지원본부 본부장 조금생 △자연계 행정지원팀장 김기홍 △법과대학·법무대학원학사지원부장 겸 법학전문대학원학사지원부장 전철우 △학예부장 겸 기록자료실 부장 김상덕 △사회봉사단지원부장 이환 △인재개발원 부장 겸 경력개발센터 부장 백나실 △학사팀장 최성수 △평가팀장 오윤세 △연구기획팀장 겸 R&D 전략기획센터 부장 유신열 △인문사회계 교육지원팀장 신복호 △감사실 부장 현계환 △인문사회계 행정지원팀장 윤종근 △자연계 교육지원팀장 김은경 △국제교육팀장 유원종